



The-K 인터뷰

학교의 숲에서 피운 사랑과 희망의 꽃

한영고등학교
신동필 교사



06

2020
VOL.34

웹진



- ◀ 어제, 기억하기 • The-K 인터뷰 _ 아이들의 마음에 담긴 속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
- ▶ 오늘, 생각하기 • The-K 특파원 _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 ⏸ 지금, 쉬어가기 • 라이프 연구소 _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_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5
- ▶▶ 내일, 행복찾기 • The-K Focus _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The-K의 대표 상품, '장기저축급여' 스토리

Contents

04 여는 글
다시 뜰 무지개를 기다리며



◀ 어제, 기억하기 —————
Remember_역사 이야기 & 회원 참여 & 인터뷰

06 에세이
학교야, 요가 하자

08 The-K 갤러리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10 The-K 인터뷰 1
아이들의 마음에 담긴 속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_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14 The-K 인터뷰 2
학교의 숲에서 피운 사랑과 희망의 꽃
_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
한영고등학교 신동필 교사

18 스승상 수상자 공적 소개
교육 혁신의 숨은 주역들,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20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뜨거운 삶을 실천한
독립운동가 '유일한 선생'



▶ 오늘, 생각하기 —————
Think_교육 기획 테마 & 세대별 맞춤 콘텐츠

24 The-K 스페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8 The-K 리포트
다양한 교수법을 실험할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
학교를 디자인한 덴마크의 '외레스타드 김나지움'

30 The-K 특파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34 공간의 재구성
공간,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 _ 울산 천상중학교

38 [+25] 그 쌤의 이중생활
대니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_ 양주백석초등학교 정도행 교사

42 [+35] Be Myself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실천적 방법

44 [+45] 티처&티처
미래 역량의 핵심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

46 [+55] 인생 2모작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개학을 기다린다
_ 재능기부 활동가 김광학 회원

발행일 2020년 6월 1일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인 차성수
(직무대행 이진석)
기획 홍보마케팅부 미디어소통팀
유종훈, 이정우, 김경희, 김충환, 황수현
편집 수석기자 이영경
객원기자 정라희, 이성미, 이경희, 정은주
교열 이영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영임
디자이너 김도윤, 현예림
사진 포토그래퍼 김도형
법률 자문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JP)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이팝 웹개발팀
디자인, 제작 (주)이팝 02-514-7567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지금, 쉬어가기

Relax_여행 & 건강

50 라이프 연구소 1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 5

52 라이프 연구소 2

봄과 여름 사이의 불청객, 감염병

54 라이프 연구소 3

집에서 찐 살? 집에서 뺀다!
_ 홈 트레이닝 유튜브 총집합

56 마음썸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
당신의 가족은 안녕한가요?

58 더-쉽

행복지수가 플러스 되다,
캄보디아 '양코르와트 한 달 살기'



내일, 행복찾기

Happy_공제회 주요 이슈& 출자회사 이벤트

The-K Focus

62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The-K의 대표 상품,
'장기저축급여' 스토리

66 100세까지 든든한 건강지킴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

68 교육가족의 니즈를 꿰뚫어 글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The-K 크리에이터'

72 The-K News

공제회 주요 이슈 및 출자회사 이벤트

74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2019년 결산'편

76 독자 의견

소통하고, 함께하다
'독자에게 듣는 The-K 매거진'



지상 강의

80 온라인 개학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다시 뜰 무지개를 기다리며

요란한 장대비를 견뎌내야만 무지개는 하늘 가득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둥, 번개의 매서움을 외면하면 무지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시련에 몸을 던져
 함께 두려움과 냉혹함을 견뎌온 만큼,
 우리의 무지개는 인내와 새로운 희망의 지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The-K 매거진 6월호」는
 무지개처럼 선명하게 새긴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지면을 채워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조선미 교수님과
 신동필 선생님 및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선생님들의 열정에서 미래 교육의 희망을 보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습법 및 교수법과 더불어 생활 방역 수칙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또한, The-K 크리에이터가 발 빠르게 전하는 생활 속 알찬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머지않아 끝날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내일은 무지갯빛으로 더 빛날 것입니다.
 「The-K 매거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일의 무지개는 더욱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



학교야, 요가 하자

글. 정아령(구름산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애 좀 보세요! 우와~ 대~박!!”

아침부터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며 놀고 있다. 사랑스러운 풍경이다. 요가동아리 아이들이었다. 자세의 이름을 알거나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으로 몸을 써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지난해 척추측만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아이가 우리 반에 두 명이나 있었다. 한 명은 아예 허리 보호장구를 차고 수업을 들었다. 척추 측만증과 거북목, 일자목 증후군이 흔한 것은 개인의 문제일까. 불편한 의자에 아이들을 너무 오랫동안 앉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른! 자세!”를 입에 달고 살았다. 바르게 앉고 서는 방법을 틈나는 대로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잘못된 자세 습관과 운동 부족은 잔소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체육은 대체로 피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쟁형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이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주기에는 부족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는다. 학교가 좀 더 유연해지면, 아이들도 좀 더 말랑해지지 않을까.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대신 표현하고 흘러보낼 수 있다면, 싸우고 화내는 대신 허허 웃고 둥글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갈등 또한 자연스레 왔다 가지 않을까.

십여 년간 드문드문 요가를 하다가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뒀다. 나는 별로 유연하거나, 요가를 잘하지 않는다. 꾸준히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내게 요가는 생존이었다. 가뭄둔 마음들을 움직임으로 흘러보내야 했다. 음악과 함께 움직이면서 춤추는 듯 자유로웠고, 나는 듯 가벼웠다. 하루는 요가를 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마음의 명물은 몸을 굳어지게 했고, 그 굳어진 부분에 자극이 가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그리고 깨닫는 진실이 있었다.

‘나는 나를 정말 몸시도 미워했구나. 그러니 안 아플 재간이 있나.’

요가에는 그런 힘이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하게 한다. 그러면서 내 몸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는다. 숨어있던 내 몸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느리지만 쉽 없는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의 근육이 붙고 유연해진다.

열세 살 사춘기 아이들 역시 자신의 외모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 아이들과 함께 요가를 하며 내 몸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학기 초 우리 반 스포츠클럽 종목을 정하는 날이었다. 늘 그렇듯 피구나 축구 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육 놀이를 접하지만, 아이들에게 체육은 여전히 ‘공으로 하는 경기’를 의미했다. 그런 아이들이 과연 요가를 좋아할까?

“선생님은 요가를 좋아해. 같이 해 볼 사람……?”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물었다. 웬걸, 생각보다 많았다. 한두 명만 지원해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생각이었는데 남학생 둘, 여학생 다섯, 총 일곱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우리 반 스포츠클럽 중 하나로 요가 동아리를 시작했다. 교실에서 하기엔 공간이 좁았고, 특히 사춘기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빈 교실을 찾아가 매트를 깔고 요가 놀이를 시작했다.

“선생님, 우리 요가해요!”

“정말? 놀러 안 나가고?”

놀이 시간에 놀지 않는 아이들이라니. 그게 참 이상하고 신기했다. 요가는 아이들에게 가장 재밌는 놀이가 되었다.

학기 말에는 ‘인사이드 플로우(inside flow, 팝송이나 대중음악에 맞춰 요가 동작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현대요가)’를 연습해 축제 공연을 했다. 학교 공연으로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감각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요가는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아이들은 공연을 위해 방과 후에 틈나는 대로 모여 연습을 했다.

그중 지환이는 단연 히어로였다. 섬세한 손끝과 호흡으로 가사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처음에는 ‘요가가 뭐야? 남자도 요가를 해?’라고 말하던 어린이 관객들도 이내 공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생각났다. 지환이는 과격하고 경쟁적인 체육이 싫다고 말하던 남자아이였다.

“운동을 싫어하던 제가 요가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가로운 삶’을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학기 말에 지환이가 이런 글을 남겼다.

‘선생님 덕분에 나를 예전보다 훨씬 사랑하게 되었다.’

나의 한 해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The-K 갤러리」는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국 교직원들의 문화예술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삶이 있는
공간

안현숙
퇴직회원
(마곡중학교)

캔버스에 유화 | 90.9x72.7cm, 2018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사는 풍경은 비슷하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예쁜 화분들, 깨끗하게 빨아놓은 빨래, 얼기설기 얹힌 전선줄, 어딘가에 갈 수 있는 자전거, 외부와의 소통 통로인 우체통 등. 이런 일상의 모습에서 삶의 향기가 느껴지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속삭임

박용자
퇴직회원
(서울방산초등학교)

수채화 | 40x30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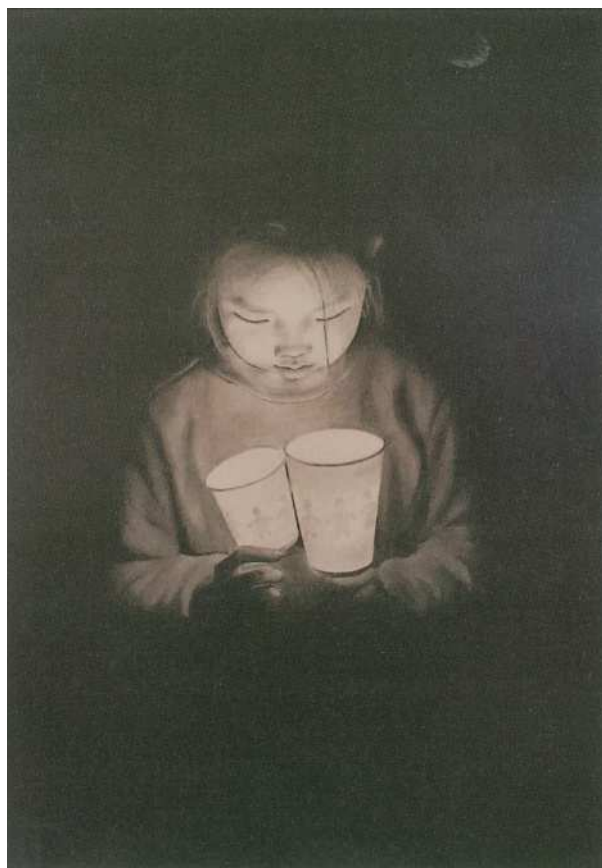
푸른 자작나무 숲 속을 바라보는
순간, 조용히 들려오는 속삭임을
느껴봅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청량한 바람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너희에게 우리는

정우정
성지초등학교

연필화 | 39.4x54.5cm, 2018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들고 소중히 바라보는
아이의 표정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불빛에 담긴 손잡은 사람들 이미지를 넣어 그
희망을 함께 나눔으로 희망이 지속됨을 표현하였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어울리는 재료인 연필만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였다.



「The-K 인터뷰 1」은 각 전공별 명사가 된 교수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로, 교육가족이 명사의 교육 가치관과 철학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담긴 속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조선미 교수

이 세상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아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부모는 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진짜 아이에게 들려주어야 할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선미 교수는 오래전부터 부모를 위한 교육 활동에 집중해왔다.

글. 정라희 사진. 김도형

우리 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조선미 교수는 우리나라 대표 자녀교육 멘토로 통한다. 2006년부터 EBS 「60분 부모」, 「달라졌어요」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녀교육 문제로 고심하는 여러 부모에게 전문가의 조언을 전해온 것. 더불어 그 자신이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다양한 고민과 해결 과정을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냈다」, 「성장하는 십 대를 지혜롭게 품어주는 엄마의 품격」 등 일곱 권의 책으로 풀어내기도 했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에 소아정신 분과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90년에 비로소 아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세 곳의 병원에 소아정신과가 생겼어요. 소아정신 문제를 다루는 곳이 흔하지 않으니 ‘아주대학교병원이 진료를 잘 본다더라’ 하며 많은 분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적지 않았다.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은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교정하는 일과도 다르지 않았다. 부모들에게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하고 일일이 당부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나날. 그러다 한 지면에 칼럼을 기고한 것을 계기로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다.

“심리치료를 하다 보니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부모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조선미 교수의 소속은 정신건강의학과이지만, 그는 의사가 아닌 임상심리학자다. 아주대학교병원 같은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의사와 심리학자가 함께 근무하며 평가와 심리 치료, 관련 연구 등을 공동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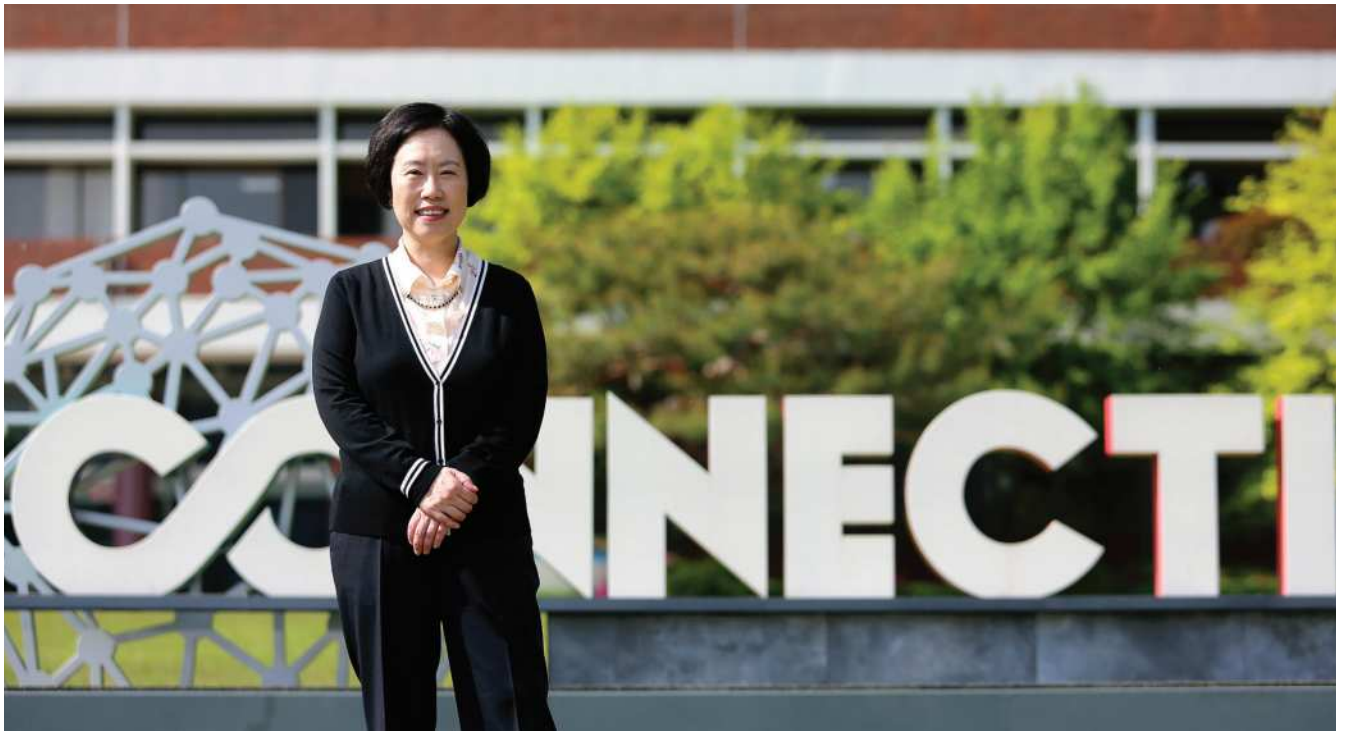
그의 책 속에 그리고 방송으로 전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두 자녀가 어느덧 성인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속상하겠다’하고
 공감해주면 위로는 될 수 있어도
 문제는 반복되지요.
 임상에서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도 늘었다. 온라인 교육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걱정하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조선미 교수는 “그 시기에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은 불과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말한다. 등교했다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것, 한편으로 조선미 교수는 요즘 국내에 잘못 소개된 심리학 개념을 바로잡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서구에서 간행된 전문 서들이 번역되면서 원래 의도와 다르게 전해진 경우가 많다. 국가마다 다른 문화와 언어 표현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외국 방식대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직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이바지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해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좋아져도 여전히 조선미 교수는 치료실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마주한다. 부모도 아이도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조선미 교수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방법을 찾아 고민하고 또 숙고한다. ⑧



학교의 숲에서 피운 사랑과

희망의 꽃



「The-K 인터뷰2」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꽃길과 흙길을 함께하며 행복한 교사의 삶을 살아온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 신동필 교사를 만나보세요. ▶

제 9 회 대 한 민 국 스 승 상 대 상 수 상 자 한 영 고 등 학 교 신 동 필 교 사

제자는 스승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스승은 제자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었다. 30년 교직생활 중 27년간의 연속 담임생활, 그 안에서 신동필 교사가 얻은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제자들이었다. 그를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로 만든 그 묵직하고 단단한, 지금도 현재진행 중인 사랑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정라희 사진. 김도형

동기부여를 위해 정성을 쏟다

돌이켜보면 신동필 교사는 언제나 학생들을 믿어왔다. 그에게 학생이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미지의 대상이자,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1990년 한영고등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신동필 교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꿰어온 첫 단추는 '상담'이었다. 그것도 학생당 2시간에 걸친, 길고 긴 상담 말이다. 그 시간은 신동필 교사가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학생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담임교사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눈치채는 시간이었다.

“고교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담임교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압니다. 어떤 교사가 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행동을 보고 마음을 파악해요. 오랜 담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진심으로 다가가면 학생들과 소통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담임이라는 자리는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을 다듬어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얻고, 제법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7년간 연속 담임을 맡으며 그중 18년간 3학년 담임을 자진해서 맡았던 그의 이력은 어쩌면 힘들보다는 기쁨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교사로서 그가 학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명백했다. 바로 '동기부여'. 공부 스스로 느껴서 하고자 할 때 큰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학생들에게 뜨거운 정성을 쏟았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밤 11시까지 학생들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함께했고, 쉬는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중에서도 40분 동안 묵묵히 교실을 지키며 학생들과 눈을 맞췄다.





꽃길과 흙길을 함께 걸으며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고3 담임을 맡은 신동필 교사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주요 과목의 과목 부장을 정해서 매주 학습 범위를 알리고, 주 2회 과목별 문제를 만들어서 평가했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된 학생들은 성적이 놀랄 정도로 올랐고,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였던 것. 그것이 이듬해에도 계속되자 신동필 교사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주목받았다.

그는 교직 생활 내내 소위 말하는, 반 평균을 낮추는 꼴찌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다. “저는 늘 학급에서 맨 아래 학생을 챙깁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겨요. 그 학생이 감동을 받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급 분위기가 매우 좋게 변합니다. 학교폭력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단합된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는 것은 물론, 체육대회나 축제에서도 상을 휩쓸죠. 34명 중 서울 주요 대학에 18명을 보낸 적도 있고, 56등을 하던 학생에게 ‘넌 한문만 하자’해서 한문 100점으로 자신감을 끌어 올려 대학에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된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신동필 교사가 맡은 반 학생들의 멘토를 자처하면서 다시 학교에 돌아와 자신의 경험담과 학습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걸어 온 모든 여정이 꽃길만은 아니었다. 반항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사고를 치는 학생들도 있었다. 혼을 낼 때는 호랑이 선생이 따로 없었다. 체벌이 가능했던 예전에는 왜 맞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체벌을 한 뒤 학생을 껴안고 같이 운 적도 있었다. 힘든 가정형편에 가출한 학생도 있었는데, 밤새 학교와 집 주변을 뒤져 2주 만에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는 결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가출했던 그 학생은 지금 경찰이 되어 성실히 복무 중이라고 해요”라는 이야기를 덧붙인 신동필 교사의 얼굴에는 애뜻한 미소가 어린다.

제자들이 만든 동필장학회, 삶의 의미를 더하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제자들은 자진해서 1996년 다음카페에 ‘한영고 DP(동필)사단’을 만들었다. 17년간 이어져 오던 이 모임에서 제자들은 만남의 의미를 키우고 동기부여가 필요한 후배들에게 힘이 돼 주자는 생각으로 ‘동필장학회’를 만들자며 그에게 제안을 했고, 마침내 2016년





교사로서 그가 학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명백했다. 바로 ‘동기부여’. 공부는 스스로 느껴서 하고자 할 때 큰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학생들에게 뜨거운 정성을 쏟았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밤 11시까지 학생들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함께했고, 쉬는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중에서도 40분 동안 묵묵히 교실을 지키며 학생들과 눈을 맞췄다.



3월, 동필장학회가 설립됐다. 고교 은사의 이름을 딴 장학회라니, 모두가 놀란 이례적인 일이었다. 첫 답임 때 만났던 제자들은 이제는 대학교수, 변호사, 교사, 공무원, 회사원 등 어엿한 사회 일원이 되어 장학회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후배들에게 전달하면서 스승과의 만남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보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길 원했다.

“역사를 가르친 저는 수업 시간에 고려 말 혼란기에 마주 선 정몽주와 이방원, 정도전을 놓고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론 주제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기도 했어요. 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교직 생활 30년이 되는 해에 제가 직접 쓴 ‘정도전’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동필 교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년 동안 사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해 틀을 만들었으며, 소설 작법에 대한 책을 10권 넘게 읽었다. 그리고 집필한 원고를 2년에 걸쳐 다듬고 고쳤다.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의 정도전 역사소설 「창업」은 마침내 지난 3월에 빛을 보았다. 제자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했던 그가 만들어낸 성과였다.

신동필 교사에게 교직은 천직이다. 마을에서 서당 훈장을 하였던 외조부의 영향으로 역사를 전공했고, 논어·맹자를 익혔던

그는 꿈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의 말속에는 좋은 교육자가 되고자 한 열망과, 간절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작은 불씨를 학생들에게 지퍼주려는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응원해준 제자들과 도와주신 주변 모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지요.”

신동필 교사는 지금도 부지런히 공부한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기본임을 잊지 않기에 EBS 인터넷 강의를 꾸준히 보고, 인기 강사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 자신의 수업에 적용한다. 그의 방과 후 역사 수업 신청이 3초 만에 마감되는 이유다.

정년퇴직까지 4년이 남았지만, 그에게는 할 일이 많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새내기 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꾸준히 할 예정이고, 퇴직 후에는 장학회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의 30년 교사의 삶,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삶이 천천히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전히 그는 초심으로 또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필 교사가 한번 더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만난 건 제 삶의 큰 행운이고 축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㉞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교육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교사 중
10명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교육 현장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한 영광의 얼굴들과 빛나는 궤적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하기
위한 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해 유아·특수·초등·
중등·대학 분야에서 모두
10명을 선발한다.

건강한 유아를 위한 교육실천가



유아 · 우영혜(거창유치원 원장)

오직 유아만을 생각하는 교육실천가로 현장에서 쉼 없이 일해 왔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비롯해 교육부 지정 안전교육 시범 유치원,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등에 선정되어 교육 활동을 해 왔으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임원으로서 유아교육 위상정립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미안마·라오스 어린이돕기 성금 및 학용품 기부, 바자회 수익금 새터민 기부 등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장애학생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특수 · 황정현(세종누리학교 교사)

지난 27년간 특수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교육현장에 서 왔다.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문 학습공동체를 조직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으며, 실천자로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펼쳐 특수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세종시 첫 번째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에서 개교부터 지금까지 교무·연구·교육과정 운영 보직교사로서 재직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기틀을 닦았다.

마을과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초등 · 권미숙(이리남초등학교 교장)

교육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학습을 고안하는 등 학교문화 및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학습활동을 추진했으며 농촌지역에서 '신나는 토요일학교', '어르신 한글교실' 등을 꾸준히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높은 신망을 얻었다. 많이 삶이 되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 활동 중이다.

창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실을 바꾸다

초등 · 김창섭(대구대남초등학교 교사)

창의적 프로젝트 수업은 김창섭 교사의 트레이드마크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교과서 없는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했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다. IT 관련 미래역량교육에도 발 벗고 나서는 한편,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수업 연구 결과를 공유해 타 교사들에게 교실수업 개선 의지를 북돋아 큰 신임을 얻고 있으며 아이들이 등교하고 싶어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열정을 쏟는다.



오직 진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다

초등 · 서정애(양서초등학교 수석교사)

시범수업공개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 존중 풍토 및 교수학습법 개선을 실천해왔다. 새내기 교사들을 위해 수업 나눔 컨설팅을 했으며, 꾸준한 연수와 다양한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계발에도 힘써왔다. 일반학급 학생 및 통합반·위탁아동·다문화·더봄 학생 등을 위해 지속적인 학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성함양과 정서안정에 크게 이바지했다.



학생생활지도의 최고 전문가

중등 · 서현석(청학공업고등학교 교사)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관계중심 SYST Mentoring 프로그램을 개발해 95%가 넘는 학업 지속률을 달성했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을 위해 8년간 자원봉사를 했다. 인천시교육청 지정 금연교육정보센터 최초 운영자로서 흡연 예방과 금연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문화와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희망멘토

중등 · 임혜숙(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문화 환경이 열악한 시골의 교육·문화 환경개선은 그의 사명이었다. 작은 미술관을 개관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했고, 학당을 차려 마을 어르신들의 문맹퇴치에도 힘썼다. 전국 최초로 벽화 도벽을 통해 학교를 쾌적한 공간으로 바꿨으며, 교과 융합 프로젝트 협력수업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학교문화를 조성했다. 미술교육과 그림을 통해 자신과 주변인을 성장시키는 희망 멘토 화가로 신망을 얻고 있다.



현장과 이론에 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다

대학 · 김은집(연암대학교 부교수)

축산분야 전문가로 일찌감치 명성을 얻었으며 2008년부터 연암대학교에서 재직했다. NCS 교재개발 등으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어왔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13명의 학생에게 8,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영농특성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의 비전 특성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는 데 기여했다.



교육의 힘으로 꿈과 희망을 만들다

대학 · 전창진(경북대학교 교수)

26년간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강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등 공정성과 개방성을 기본으로 학생들로부터 가장 높은 강의 평가 점수를 받았으며, 45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최근 10년간 국제학술지에 주저자 논문 31편을 발표했으며, 과학고·영재고 학생들을 위해 R&E 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창의적 학습방법 개발 등으로 교육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뜨거운 삶을 실천한 독립운동가 ‘유일한 선생’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는 많은 이들에게 ‘신상(紳商, 민족정신을 가진 상인을 가리키는 말)’으로 존경받을 만큼 개인이나 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대신 민족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바쳤다.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그 누구보다 청렴한 기업인의 삶을 살았던 그는 시대의 양심이자 뜨거운 독립운동가였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 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단어인 '노블레스(Noblesse)'와 책임이 있다는 '오블리주(Oblige)' 단어가 합쳐져 생겨났다. 오늘날 부나 명예를 가진 사회지도층이나 기득권이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유학시절(왼쪽)과 독립운동가 박용만이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만든 헤이스팅스 한인소년병 학교(오른쪽)

유일형에서 유일han으로 시작한 미국 유학 생활



유학시절(위)과
미식축구 운동선수 시절(아래)

평양에서 태어난 유일han은 1904년, 아홉 살의 나이에 오늘날의 조기유학에 해당하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런데 아버지(유기연)가 환전하라고 건네준 목돈을 배에서 잃어버린 유일han은 인솔자였던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도움으로 네브래스카주에 거주하던 침례교 신자인 태프트 자매에게 입양됐다. 그들은 새롭고 낯선 땅에서 유일han의 새로운 가족이었고, 영어 선생이자 인생 선배였다.

유일han의 본명은 유일형(柳一馨)이었는데, 미국에서 그는 스스로 '한민족'을 뜻하는 '일han(一韓)'으로 개명했다.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고 자칫 불효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아들의 생각에 감동한 아버지 유기연은 오히려 다른 자녀들의 이름도 '한(韓)'자 돌림으로 개명시켰다.

1909년, 박용만이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만든 헤이스팅스 한인소년병 학교에 입학한 유일han은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았다. 이미 유일han의 삶은 독립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유일han은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했고, 동양인이 넘기 어려운 벽인 미식축구 운동선수가 되었다. 미식축구부의 주장을 맡을 정도로 운동에 재능이 있었지만, 장학금을 받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조선인이 되어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대한민국민회 간부들과(위) 한인자유대회에서 결의문 낭독(아래)

대학생 유일han에게 어느 날 조국의 소식이 들려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다음 해인 1919년에 3·1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발각 뒤집혔고,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한인의회를 소집했다. 1919년 4월 13일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연합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가 열렸고, 유일han 역시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참석했다. 제1차 한인연합회의가 끝난 뒤, 서재필·이승만·조병옥·임병직의 주도로 4월 16일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인자유대회(1919년, 1942년 미국에서 개최되었던 독립운동후원대회)'가 열렸으며, 유일han은 이 행사에도 참석했다. 청년 세대 대표로 한국의 독립을 외친 대학생 유일han은 당시 30살의 나이 차를 둔 재미 한인 지도자 서재필과 나란히 태극기를 들고, 그곳에서 있었다.

당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학교에 다니던 유일han은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부채, 찻잔 등의 중국 전통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해 전통



라초이 회사(위)와
라초이 회사 식품(아래)



제품을 구매해서 집안에 장식해둔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사업 수완을 발휘한 것이다. 이때부터 그의 사업적 재능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너럴일렉트릭(GE) 회사에 취직했고, 3년 차였던 1922년에 회사를 그만둔 뒤 미국인 대학동창이자 식품사업을 하던 웰리스 스미스와 동업하여 '라초이(La Choy)'라는 식품 회사를 창립했다. 그의 벤처 창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라초이 식품 회사는 당시 아시아인들이 즐겨 먹던 숙주나물 요리를 저장·보관하기 위해 통조림을 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소개를 받은 중국계 미국인 여성인 '호미리'라는 소아과 전문의와 결혼했다. 유일한은 당시 극소수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낸 손꼽히는 조선인이었다.

대한독립을 위해 자원입대하다



1926년 유한양행 설립

거래처 확보를 위해 중국에 다녀오면서 국내에 머물렀던 유일한은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동포들을 보며 고국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사업체와 재산을 정리한 뒤 1926년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은 만주를 침략했고(1931년 9월), 중일전쟁(1937년 7월)을 일으켰다. 국내 상황이 긴박하게 변하자 유일한은 미국으로 넘어가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후, 1941년 4월 중국·러시아·프랑스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해외한족대회(미주한인단체들의 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일한은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참 귀하고 중요하다.

1. 대한민족은 주의와 이론을 초월하고 온갖 역량을 항일전선에 집중할 것
2. 대한민족과 각 단체는 임시정부를 절대 신뢰하며 물질과 정신을 다 하여 희생적으로 봉대할 것
3. 해외 한족 단체는 전체 동포에게 광복군 군인의 의무가 있을 것을 인식시키며 전선 출동의 훈련을 장려하기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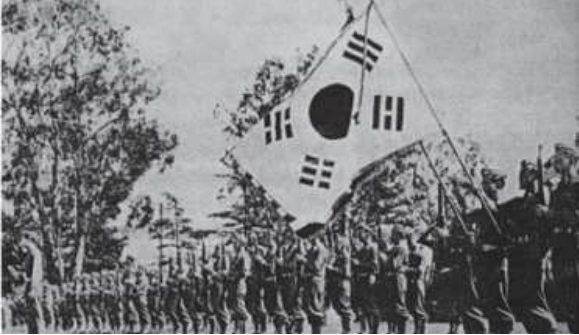
즉 대한민족 동포 모두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지와 후원 아래 광복을 위해 독립투사로서 함께 최선을 다해 싸우자는 것을 결의한 것이다. 유일한은 이 결의의 조직체로 만들어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에 선임되었고, 단체운영 자금을 기부하며 독립운동자금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일본은 진주만을 폭격했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유일한은 이때 자신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된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잠시 안식년을 가지며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했지만, 그가 향한 곳은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정보처(OSS)였다. 유일한은 국내 투입작전을 위해 미군 특수부대에 자원입대를 선택한 것이다. 조기유학, 운동선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업가, 유한양행 설립자였던 그는 스스로 군인이 되었다.

그곳의 군인들은 언제든 목숨을 잃어도 기록조차 남지 않을 선택을 했다.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가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청년들이었다. 이들 중



1941년 해외한족대회



유일한 선생이 편성에 참여한 한인 국방경위대, 미주한인 맹호군

시대의 양심이 된 청렴한 기업인



1968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납세훈장을 받는 유일한 선생



유일한 선생



유일한(柳一韓) 선생
(1895.01.15 ~ 1971.03.11.)

-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 유한양행과 유한재단 설립
-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 197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핵심 요원이자 가장 최고령자인 한국인이 바로 유한양행을 설립한 기업가, 유일한 회장이었다. 그러나 특수부대의 비밀작전 실행을 목전에 두고, 일본의 항복으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다. 1946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한 채 유일한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다. 유일한의 자원입대 선택은 생전에 그의 가족을 포함해 아무도 몰랐고, 훗날 미국에서 자료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유일한은 개인 소유주식을 처분해 유한공업고등학교를 건립했다. 학비와 기숙사 숙식비는 전액 무료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머지 개인 소유주식 12,000주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하며 주식 기증의 엄격한 전제조건을 걸었다.

“(오직) 의료복지와 교육을 위한 목적 외에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

그는 기업의 부패를 막기 위해 회사에서 아들과 집안사람들을 모두 내보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완수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 전문경영인(CEO) 제도가 도입되었고, 제약업계 최초로 상장사가 되어 기업경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정경유착이 일상화되었던 그 시절, 정치가들에게 전혀 기대지 않았던 유한양행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납세훈장을 받기도 했다. 세상을 떠나며 유일한은 유언을 남겼고, 손녀의 등록금을 제외한 전 재산을 기부했다. 1971년 당시 금액 36억 2천만원, 평생 기부한 금액은 50억원이 넘는데 당시 신입사원 월급이 2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한 셈이다.

이 뜻을 이어받아 손녀 유일선은 자신에게 남겨진 등록금 중 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했으며, 딸 유재라는 200억 원에 이르는 모든 재산을 유한재단에 기부했다.

아메리칸 드림, 성공한 사업가, 유한양행 설립자, 40대 후반 나이에 목숨을 걸고 미국 특수부대에 자원입대한 독립투사, 전 재산 기부, 대한민국 최초 종업원 지주제, 전문경영인(CEO) 제도 도입, 제약업계 최초 주식 상장, 대한상공회의소 초대 회장, 가장 존경할만한 기업가, 그리고 애국자. 이처럼 ‘유일한’이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단어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것은 국가와 동포에 대한 헌신이었다. 한 평생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한 그의 선택을 돌아보며 그를 기억해본다. ㉞



1969년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넘기는 유일한 선생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⑩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글. 신중우(신한대학교 대학원
통합교육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2020년 1학기 개강이 수차례 비대면 수업으로 연기되었고, 이론 과목을 제외한 실기 및 실습 과목에 한해 면대면 수업이 일부 진행되는 중이다. 유·초·중·고 교육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유지할 때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온라인 수업의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길이 막혔다면, 즉시 다른 길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한 대안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다.

D I G I T A L



L I T E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활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터넷을 탐색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R A C Y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온라인 수업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자의 주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활용,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인터넷을 탐색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리터러시(literacy)’는 문해력으로 글을 올바르게 읽어 이해와 추론이 가능하고, 글로써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나타내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리터러시 개념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이뿐만 아니라 사진·동영상·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평가·사용·표현·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확장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웹 브라우저 사용, 웹 구성에 대한 이해, 검색엔진 사용, 수집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시스템·개인 정보·콘텐츠 보안에 대한 것들이다.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장 잘 구현한 플랫폼으로, 신경망처럼 인터넷상에서 모두 연결돼 있다. ID 하나만 있으면 문서·채팅·화상통화는 물론, 유튜브 영상 스트리밍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서 하나를 수정하는 협업도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스마트 워크 능력을 통칭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D I G I T



그렇다면, 교수자들이 꼭 알아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양질의 온라인 수업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활용법

첫째, 콘텐츠 저작권을 준수하자.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수업 콘텐츠가 SNS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널리 확장될 수 있어 저작권 문제가 없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Pixabay(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로, 고품질 퍼블릭 도메인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그래픽 및 동영상의 필름 영상을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다.

둘째,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 자료를 활용한다. 대부분의 수업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파워포인트(PPT)로 준비되어 있다. 파워포인트는 컴퓨터 필수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업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파워포인트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정적인 문서이므로, 좀 더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Emaze(이메이즈, www.emaze.com)가 있는데 이는 학습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생생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다. Emaze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무료 템플릿

을 이용하면 쉽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 템플릿은 웹 문서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5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호환되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녹화한 영상을 콘텐츠에 맞게 편집하면 된다.

영상 편집은 녹화된 영상을 콘텐츠에 맞게 컷(shot)과 장면(scene), 순서(sequence)를 배열하면서 영상물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편집 시 불필요한 장면 제거(자르기), 의미 전달의 효과를 위하여 압축된 이미지 및 자막 선정, 영상과 음향을 혼합하여 단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오디오 추가, 컷을 잘라낸 흔적 등을 눈치채지 못하게 컷 별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영상 전환 효과들로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양질의 수업을 위한 온라인 소통법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학습 성과를 꾸준히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학습자와의 상호 피드백을 위한 소통 채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수자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소통법’을 소개한다.

첫째, ‘학습관리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s)’ 활용법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 진행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하며 학습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A L L I T E R A C Y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의 서버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교수자의 강의 영상이 고화질로 업로드된다면 다중의 트래픽(traffic, 데이터의 전송량) 증가로 인해 용량 과부하가 발생되어 온라인 수업 접속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면 된다. CMS로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한다. 유튜브 채널에 수업 영상을 미등록(일부 공개)으로 업로드한 다음, URL을 학교의 LMS에 연결하면 위와 같은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업 영상을 누구나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고, 공개 여부(공개·일부 공개·비공개)를 결정한 후 URL로 공유할 수 있어, 유튜브 채널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CMS로 최적이다. 유튜브에 업로드한 다음, 콘텐츠 URL을 SNS로 공유해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둘째,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활용법

구글 클래스룸은 학습 목표를 높일 수 있는 수업 진행을 위해 효율적으로 과제를 할당하고, 공동작업을 촉진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자는 수업을 만들고, 과제를 내고, 피드백을 보내고,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구글 클래스룸은 학교와 비영리단체 및 구글 계정을 가진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LMS로, 온라인 시대의 교육 플랫폼으로 최적이다.

셋째, '화상강의(Video lectures)' 활용법

원격으로 화상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구글 행아웃(Google Hangouts), 줌(ZOOM), 시스코 웹엑스(Webex)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유튜브·아프리카 TV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 화상 강의는 교수자의 수업 진행 방식에 따라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격 수업 방

식은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없는 혁신 대학'처럼, 단순히 강의 영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수의 얼굴을 보여주며 상호작용하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 형태다. 이처럼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 수업이 아닌, 쌍방향 창의성 수업이 전 세계적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당장 교육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수업 콘텐츠 제작·운영 등으로 교육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수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전회위복으로 받아들이는다면 19세기형 교실 수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이 활발해지는 21세기 교육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임에도 전 세계에 '작지만 강한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듯이, 온라인 교육 부분에서도 교육자들의 사명감과 힘이 모아지면 전 세계에 고품격 교육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K-pop의 한류 열풍처럼 K-edu도 그 뒤를 이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㉔





다양한 교수법을 실험할 수 있게 열린 공간으로 학교를 디자인한

덴마크의 ‘외레스타드 김나지움’

「The-K 리포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의
혁신학교 사례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4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하나의 커다란 교실로 디자인하고,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부메랑 모양의 목조 계단이 설치된 독특한 학교. 또한, 모든 수업의 3분의 1 이상을 열린 공간에서 진행
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다른 교사의 수업을 자유로이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며, 칠판과 종이 교과서가 없
어 자신의 새로운 교수법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개발해야 하는 학교가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공간 자율성까지 보장해주는 그곳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이다.

글.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하나의 커다란 교실’로 디자인된 학교 건물

외레스타드 김나지움(Ørestad Gymnasium)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건축물이 가장 눈에 띈다. 개별·모둠·소집단·대집단 학습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학습지대가 배치될 수 있는 ‘열린 공간(open space)’을 갖춘 혁신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여러 건축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로뉴스(Euro News, 유럽권의 대표적 뉴스채널)’가 뽑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닌 세계 3대 학교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은 전통적인 교실을 모두 없애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교실로 디자인했다. 건축가 닐센(K. H. Nielsen)에 따르면, 전통적인 교수법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고, 교사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교수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했다고 전해진다.

‘열린 공간’의 상징인 건물 중앙의 커다란 목조 계단

외레스타드 김나지움 건축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부메랑 모양으로 이어지면서 회전하는 목조 계단이다. 층간의 장벽을 허문 목조 계단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각 수업 장소로 오르내리는 이동 공간이지만, 동시에 주변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을 볼 수 있는 관찰 공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중앙 계단은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하루에도 다섯 차례 이상 오르내리면서 운동도 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건물의 각 층에는 한쪽 벽에 투명 유리문이 있는 수업 공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완전히 트여 있다. 이러한 열린 공간은 역동적이고 실생활과 유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도 열려 있다. 2012년 이래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수·학습 자료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학교 어디에서든 무료로 와이파이(Wi-Fi)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외레스타드 김나지움

2005년, 공립학교인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을 설립할 때 코펜하겐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한 부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학년별 15개 학급으로 총 45개 학급과 1,180명으로 구성된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은 방송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 특화 현대식 고등학교이다. 학교 근처에 TV와 라디오 방송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체가 있어서 여러 유형의 방송과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수시로 지역 산업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산업현장으로 나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담을 낮춰서 상호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발돋움하다

혁신을 추구하는 외레스타드 김나지움 교육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열린 공간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학습, 모둠활동, IT를 활용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둘째, 유관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실생활과 긴밀히 연결된 사례 학습 또는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한다.

셋째, 이수학점의 25%를 사이버 강좌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다.

학교 건물 개청식에 왕세자가 참석할 정도로 덴마크 교육혁신의 상징인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은 학교 건축물과 공간의 혁신만큼이나 교수법과 학습방법의 혁신도 추구한다. 그 결과, 외레스타드 김나지움은 덴마크의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매력적인 학교로 변하고 있다. ㉞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우리 교육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진로집중학기제, 학종 투명성 강화와 수능 전형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특목고·자사고 폐지,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교육과정 분권화 요구,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내신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등 중등 교육에 대한 이슈만도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 참여 수업 형태로의 교수·학습 변화가 출렁거린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지식이 바탕이 된 지혜가 학습의 근간이라는 주장의 대립이 있지만, 암기만 중시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이 문제들의 어느 지점을 강타할까?

글. 진동섭(교육전문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저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함





우려가 많았던 최초 온라인 수업의 시작

모든 변화의 기저에는 사회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 시대와는 달리 미래 사회는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이미 마련된 답을 찾는 사람에서 벗어나 아무도 찾아본 적이 없는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21세기에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고시한 것이 1997년, 고등학교에 적용한 것은 2002년도부터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더 존중하게 되고, 한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수 선택과목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클러스터 또는 거점학교라고 하는 공동교육과정, 몇 학교가 연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형 학교 등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이 진행되는 온라인 교실이 등장했다.

온라인 수업은 사교육에서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온라인 수업은 학교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그런데 선택과목 확대의 해결책으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었고, 많은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혹은 자신이 속한 학교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온라인 학교로 옮겨가겠다고 해도 막을 수 있을까?





전면 온라인 수업이 가져올 변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수업은 학교 시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대면 수업도 있지만, 비대면 수업이 더 많다. 온라인으로 제출 받은 활동 결과를 점검해주기도 하고, 채팅방을 열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선생님들도 잘 적응하고, 학생들도 대체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데 AI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여 교육부는 이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AI 앞에서는 틀려도 창피할 것이 없으니 더 활발하게 말하고, 지적을 받아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 수업은 교실 한켠에서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학생들을 수업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 참여율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지금까지는 자던 학생들을 깨운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말한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었다가 다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교실에서 대화창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이미지로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원탁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음료를 마시는데, 소통은 단체 SNS를 통해 하는 것은 평소 하던 것의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풍경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21세기 교육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진국이지만 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도구와 기술의 활용 능력,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능력)’는 앞서갔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교실에는 교수자용 컴퓨터와 빔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은 교사가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매체에 불과한 것이라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는 모든 학생이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각자 가정에 흩어진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서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온라인 상에서의 자료 생산과 공유가 단박에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교사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대부분의 교사는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고 실행했다. 온라인 수업 도구를 사용하는 법, 혼자서 녹화하는 법, 동영상 편집하는 법 등 더





●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었다가 다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교실에서 대화창을 열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이미지로 공유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원탁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음료를 마시는데, 소통은 단체 SNS를 통해 하는 것은 평소 하던 것의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풍경이다.



지텔 리터러시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학생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지 성심껏 대답해주고, 학생을 대견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이 고맙다는 한마디를 남기면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이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는 장밋빛 미래일까?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방식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학습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이 섞여 있는데, 수업은 중위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느린 학생을 배려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디지털 방식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학습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의 수업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면 수업과는 달리 온라인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과제가 많다, 집중이 안 된다 등 학습에 어려움을 나타내지만 학습 과정에서는 모르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터넷 과의존 학생들이 수업보다 인터넷 검색 또는 게임에 빠지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자(31.4%)가 남자(29.2%)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중이 높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34.7%)이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고등학생(29.4%), 초등학생(24.4%) 순이라고 한다. 이미 초등학생도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니,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인터넷에 과하게 빠져들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수업을 게임보다 더 흥미롭게 꾸며야 할지도 모른다.

더 큰 우려는 온라인 학습이 학교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홈스쿨링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어서,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도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다시 공교육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쌍방향 온라인 학습으로 다양한 학습 기회가 주어질 때 학생들이 학교보다 홈스쿨링을 선호하게 되면, 사람과의 만남을 경험할 기회는 언제 가지게 될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포스트 코로나는 장밋빛 미래가 될 것이다. ㉠

공간,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가 될 때

울산 천상중학교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공간혁신은 학교를 새로 짓거나 기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울산 천상중학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쉴 곳이 변변치 않았던 이곳에서 이루어진 공간혁신.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01. 높은 층고와 푸른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인상적인 중앙현관.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의 즉석 피아노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02. 중앙현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다. 흰저고리와 검정치마를 입은 작은 소녀상들은 학생들이 직접 오리고, 접어서 만들었다.



공간혁신, 그 과정이 중요하다

울산광역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천상중학교는 요즘 보기 드문 큰 규모의 학교다. 총 학급수는 1학년 13반, 2학년 11반, 3학년 11반, 특수학급 2반으로 40학급에 근접하고, 전체 학생 숫자는 천여 명에 달한다. 지역 개발로 향후 몇 년간은 학생 숫자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신승원 교장은 2년 전, 처음 부임해왔을 때 천상중학교의 첫인상을 두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복도 여기저기서 서성거리던’ 모습을 회고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 붙일 수 있는 교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학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신승원 교장이 취재진에게 꽤 두툽한 책자를 하나 건넸다.

『천상중학교 학교공간혁신 사업백서 2019』라고 쓰인 책을 펼쳐보니 첫 장에 ‘①준비단계 ②개요 및 프로세스 ③워크숍 ④기본계획 ⑤설계 및 시공’ 등 일목요연한 목차가 보인다. 말 그대로 천상중학교가 이룬 공간혁신의 모든 것에 대해 기록한 책이었다. 놀랍게도 책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회의일지, 학생들이 직접 그려서 만든 공간 디자인,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토론하는 사진까지, 새로운 공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꾸며졌는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공간혁신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바뀌기까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가 쉬고, 놀며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교육적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상중학교의 공간혁신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타 학교들은 유휴 교실과 여유 공간을 활용해 변화를 추구했지만, 천상중학교에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공간혁신 사업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5개의 새로운 공간, 5배의 행복

천상중학교는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총 다섯 군데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면서 동시에 감탄하는 곳은 중앙현관이다. 의자와 화분 하나만 놓여있던 황량했던 이곳은 소공연을 열고 전시를 할 수 있는 만남과 쉼의 공간으로 확 바뀌었다. 중앙에 놓인 커다란 나무를 중심으로 소파를 배치했고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꾸민 작은 소녀상이 놓여있다. 안쪽에는 단을 살짝 높여 학생들이 즉석에서 피아노 공연을 할 수 있도



- 03. 중앙현관 벽의 타공판에 붙어있는 메모지에는 학생들의 메시지가 자유롭게 담겨있다.
- 04. 학생들이 직접 그린 벽화, 천상중학교의 포토존이다.
- 05. 교무실 앞 복도를 카페처럼 꾸몄다. 소통의 공간이자 기다림의 공간으로 이용객들로 항상 북적인다.
- 06. 급식실 바로 옆 공간인 '썬큰'에서는 야외수업, 공연 등이 열린다.
- 07.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옥상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이 학생들을 반긴다.
- 08. 학생들이 직접 쓴 글과 예쁜 손 글씨로 꾸민 벽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 09. 공간혁신으로 새롭게 꾸며진 천상중학교가 어서 빨리 학생들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

록 했으며, 벽에 부착한 타공판에 빼곡하게 붙여놓은 메모지들은 이곳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도를 짐작케 했다.

3층에 있는 교무실 앞 복도 역시 완전히 탈바꿈했다. 원래 분리수거를 하는 자리였던 이곳을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꾸며놓았다. 화사한 색의 벽면과 은은한 조명이 설치된 이곳은 학생들과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인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신승원 교장은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절약해서 1980년대 느낌이었던 교무실도 쾌적하게 바꿨다고 전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말이 명쾌하게 울린다.

급식실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썬큰(Sunken,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도 감탄사가 나오긴 매한가지다.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야외수업도 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뽕 뚫린 파란 하늘과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다목적 휴식공간 겸 학습공간, 놀이공간이다. 접고 펼 수 있는 그늘막, 작은 무대, 대형거울, 흔들의자 벤치 등은 학생들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가 없다. 4층의 옥상은 죽은 공간을 살려낸 대표적인 경우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만 열리는 이 공간에 들어서자 절로 입이 벌어진다.





“공간혁신은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바뀌기까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쉬고, 놀며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교육적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앞에 문수산의 짙푸른 녹음이 펼쳐져 있고,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가 폐부 가득 안겨드는 느낌 때문이다. 또한, 야외 공간 역시 천상중학교의 자연친화적인 명소다. 예전에는 구석진 곳에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출입을 금했지만, 지금은 벤치와 그네를 설치하고 바닥에 놀이 그림을 그려 놓아 음지였던 이 공간을 양지로 이끌어낸 것이 이채롭다.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색색으로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 이곳을 통해 학생들은 사계절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꾸미는 우리의 공간

천상중학교의 공간혁신 사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중심 역할을 했고 1학년 자유학기 주제 탐구반 학생들과 본교 담당 건축사가 함께 교육과정 속에서 매주 1회 공간혁신에 관해 토의를 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워크숍, 디자인 설명회, 교직원 협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작했죠.”

학생들은 교내 벽화디자인 공모전, 공간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해 자신들이 꿈꾸는 학교의 이미지를 아낌없이 내놓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공간혁신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각자가 원하는 학교상을 내놓았다.

“학생들은 예비 장소 리스트 중에서 선호하는 5곳을 각자 추천했고, 토론을 통해 조별로 각각 5곳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 조에서 추천한 장소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5곳을 학교공간 혁신 장소로 선정했어요.”

그 장소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나누었다. 번뜩이는 생각도, 다소 과한 생각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내놓은 의견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신기해하고 흥분했다.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갖습니다. 공간혁신의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공간혁신 사업 외에도 교실에 옷걸이를 만들고, 복도에 의자를 설치하고, 칸막이 탈의실을 만든 것도 모두 학생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만들고 도전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혁신 사업 자체를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교육과정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그 과정을 활용했다는 신승원 교장.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개학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이 공간들에 학생들이 직접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만든 공간에 달려가 즐기는 환한 미소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K)



Teacher



「그 쌤의 이중생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노하우를 널리 공유하며, 생각을 확장하는 상상교육을 꿈꾸는 열정 대니, 정도형 교사를 만나보세요.



대니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양주백석초등학교 정도행 교사

바야흐로 영상의 시대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영상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상상을 표현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할 때가 많다. 정도행 교사의 유튜브 채널 '상상대니-대니의 디자인 작업실'은 갓 영상 제작을 시작한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참고서다.

글. 정라희 사진. 김도형

&

media



artist

재미를 열정으로 승화하다

한 사람이 단단한 벽을 통과해 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빈 박스 속으로 사람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하기도 한다. 정도행 교사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에 담긴 편집·제작 기법들이다. 실제로 그의 영상 제작 실력은 취미를 넘어선 전문가 수준이다. 퇴근 후 다른 여가에 쏟을 시간을 오롯이 영상 공부에만 매달려온 결과다. 대학 시절, 캠퍼스를 지나다 우연히 발견한 포스터 한 장이 그를 영상의 세계로 입문하게 했다. 학교 방송국에서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을 주최한다는 소식.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영상을 찍어본 일이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속 상상을 글이 아닌 이미지로 표현하는 일이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처음 도전한 대회에서 2등에 오른 정도행 교사.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잇달아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재미도 있었지만 정말 신이 났어요. 덕분에 꾸준히 영상을 만들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유튜브처럼 영상 제작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경로가 없었어요. 큰돈을 들여 방송사 아카데미에 등록해 관련 내용을 배워야 했지요.”

방송 3사 아카데미를 다니며 모션그래픽과 사진, 디지털 편집 기술 등을 두루 섭렵했다. 영상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솟았다. 한창 자신감이 높아졌을 때, 손수 포트폴리오를 엮어 영상 관련 대학원에 원서를 냈다. 하지만 돌아온 소식은 낙방. 당시 그와 함께 지원한 이들은 영상 제작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다. 면접관은 꾸준히 영상을 제작해온 그의 노력을 칭찬했지만, ‘결국 취미



media

가 아니냐는 말로 그를 돌려보냈다.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사이버대학에 입학해 미디어디자인을 전공하고, 계속해서 영상 작업을 이어 나갔다. 그렇게 8년을 더 공부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변함없이 솟아났다. 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임한 대학원 면접에서도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결국 합격증을 손에 들었다. 그 사이 그는 뮤직비디오나 단편영화를 비롯해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같은 디지털 이미지 영상 작품 등을 여럿 제작했다. 올해는 그동안 작업해온 다양한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2020년 한 해에만 다섯 차례 상영회가 예정되어 있다.

영상 제작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려요

미디어 아티스트로 작업을 이어가던 그는 요즘 유튜브 채널에 영상 제작 노하우를 공개 중이다. 애초에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는 효과적으로 작업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일종의 포트폴리오였던 셈. 하지만 현재 그의 채널은 영상 제작을 갓 시작한 이들의 입문서가 되었다. 영상 회전이나 화면 전환 같은 영상 편집 기술 설명은 물론, 영상 편집이 가능한 노트북 사양 안내까지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수업 외에도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업무가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 영상 제작을 신규 교사들이 맡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 블로그에 인트로(Intro, 도입부)와 아웃트로(Outro, 맺음부)에 해당하는 영상 소스를 공유하겠다고 올렸어요. 이런 소스가 있으면 중간에 사진만 끼워 넣으면 좀 더 쉽게 행사 영상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예상보다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그만큼 간절한 분이 많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영상작업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는 제가 아는 것을 나눠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정도행 교사는 “앞으로는 학생들도 미디어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로 지식을 얻는 것이 당연한 지금,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할 방향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는 교과서에 갇힌 교육이 아닌 상상하는 바를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꿈꾼다.

지난해에는 영상 제작을 공부하는 교사들의 연구회인 ‘상상그리다필름’을 만들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다. 현재 7명의 선생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대다수 회원이 영상 초심자인 까닭에 회장인 그가 기획과 강의를 주로 하지만, 연구회 운영이나 프로젝트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연구회 개설 첫해에는 영상 제작 역량 향상에 집중했고, 2년차를 맞은 올해부터는 공동으로 영상 제작에 나서고자 한다.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그려 놓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는 ‘상상그리다필름’ 회원들이 궁극적으로 영상에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내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디어 시대와 동행하는 법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그를 보면서 흥미와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는 아이들도 종종 만난다. 신규 교사 시절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 영상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선생님 덕분에 좋아하는 진로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보람도 컸다. 영상을 공부하는 일은 학교 업무에도

artist & Teacher



‘그 쌤의 이중생활’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5~35세 독자 여러분 중 열정 넘치는 이중생활로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혹은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이 지면에 담아, 많은 교직원분들과 공유하여 학교와 교실의 담장을 넘는 빛나는 꿈과 열정이 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로 연락 바랍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각자 맡은 업무를 전달할 때 영상을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제가 안전 담당 업무를 맡았다면, 안전 관련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미디어와 연계한 수업도 가능하고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교사들의 영상 제작 역량은 학교 운영에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영상 제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영상에 관해서라면 노하우가 큰 그도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온라인 수업 초기에는 학교 업무를 마친 후 잠들기 전까지 수업 준비에만 매달렸다. 지금도 일요일마다 온라인 수업을 먼저 열어본 후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것처럼 영상 제작의 달인이 될 필요는 없다. 수업에 관해서라면 교사들은 이미 교과와 최고 전문가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편집이 어려우면 타이밍을 맞춰 녹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키네마스터(KineMaster)’ 같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도 있고요. 삼각대가 없다면 책상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교과서를 쌓은 후에 스마트폰을 기대어 놓은 뒤 촬영할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방법들인데, 알기 전에는 몰라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촬영 방법도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도행 교사는 “앞으로는 학생들도 미디어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로 지식을 얻는 것이 당연한 지금,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 방향을 교육적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는 교과서에 갇힌 교육이 아닌 상상하는 바를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꿈꾼다.

“당연히 교과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하는 유무형의 공간이 다양해졌으면 해요. 저 역시 하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㉞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실천적 방법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어떤 행동의 결과는 의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실패 혹은 실수라 부른다. 실패나 실수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방법은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수정해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W I S D O M A N D I N S I G H T





과거의 불행한 기억과 감정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다. 교훈만이 과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과거 사건에 얽혀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날려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실수는 괜찮지만,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진짜 학습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학(學, 배움)은 지식적 접근을 말하며, 습(習, 연습)은 행위적 접근을 말한다. 경험을 통한 학습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학습의 과정이며 기회다. 일을 하면서 일 처리 방식을 개선하거나 노하우를 발견하고 배우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실패는 없다.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라는 자세로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실패를 처리하는 능력이다. 도전의 현장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얻은 지혜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조심스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승리이다”라고 했다. 어려운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성장시켜 준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것이 있기에 도전의 과정은 정말 유익하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과 성장은 매우 큰 가치다. 실수투성이의 삶일지라도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력이 자산이다

목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며, 좋은 결정과 나쁜 결정을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피드백이다. 우리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는지, 어떤 요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사결정의 절차를 밟았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 지혜와 통찰력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생각의 속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신

감을 키워준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자신의 책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력은 앞으로 맡게 되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경험은 보석이며,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험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말로 값진 것은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와 통찰력이다.

지혜와 통찰력을 얻는 실천적인 방법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개인의 지혜와 통찰력은 이러한 자기 성찰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달려 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기성찰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지혜와 통찰력은 좀처럼 자라나지 않는다. 자기성찰은 고독한 작업이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성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찰의 시간은 주위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해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자기성찰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면 된다. 특히, 중요한 행사나 사건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성공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

- 무엇이 잘 되었는가?
-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 그때 발휘된 나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실패 경험에 대한 자기성찰

-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는가?
- 어떻게 해야 했는가?
- 그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처럼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과 달라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㉔

미래 역량의 핵심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개인 역량보다는 단체 역량을 강조한다. 하지만 갈수록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드는 현 시대에서, 미래 역량을 끌어올리는 가정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글. 박재원(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

학력과 인성, 어느 것이 중요할까?

직업의 세계는 급변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바로 학벌효과의 쇠퇴다. 대부분 학벌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대입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처음 직업을 구하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학벌 외에 마땅히 볼 게 없다. 하지만 1년만 지나면 경력사원이다. '신입사원'에게 학벌이 중요하다면 '경력사원'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

경력사원 채용에는 '평판조회'가 결정으로 작용한다. 전통적인 채용과정,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했다라도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에서는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을 때, 주로 평판조회 방법을 쓴다. 한 취업준거회사에서 기업들에게 평판조치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성과 성격(55.6%), 대인관계(48.1%), 업무능력(46.7%) 등이 높게 나왔다. 채용을 거의 확정했지만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불합격 처리하는 이유도 여러가지다.

'인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39.8%)', '전 직장 이직 시 태도가 좋지 않아서(31.2%)',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가 잦아서(28%)' 등으로 확인됐는데, 역시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직은 학벌이 좋으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유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이기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1년 차 이하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이유도 비슷하지 않을까? 비뚤어진 인성 때문에 단체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다.





미래 역량,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로봇 공학자인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이 표현한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어려운 일이 인공지능에게는 쉽고, 사람에게 쉬운 일이 인공지능에게는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혀야 하는, 학벌을 얻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인공지능이 월등하다. 반면 공감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학벌경쟁에 유리하지만 사회생활에는 불리하고, 학벌경쟁에는 불리하지만 사회생활에는 유리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전처럼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면 어쩔 수 없이 학벌에 매달려야 한다. 하지만 경력사원으로 계속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한다면 ‘인성’도 함께 챙겨야 한다. 평판에 따라 자칫 인성이 나쁜 사람으로 결정된다면 헤어 나올 길이 없는 것은 아닐까? SNS와 같은 디지털 세계에 남는 흔적들이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올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29개 국가가 참여하는 교육사업으로, OECD가 2015년부터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방향 설정을 염두에 두고 출범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 혁신, 협동·협업, 적응력,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 욕구와 입장 이해, 시스템적 사고, 균형·절충점 찾기
- **책임감 가지기** : 행동 결과 예측과 평가, 도덕적·지적 성숙도, 성찰, 조절·통제

이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인공지능에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핀란드의 경쟁력을 만드는 ‘이야기 대화법’

우리나라 공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에도 공동체 역량이 있다.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동체 생활을 경험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대가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이웃공동체, 골목공동체, 또래공동체에서 살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학교와 가정 정도다. 그러나 만약 학교생활의 목적을 성적 경쟁에 두고 있다면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일은 물 건너간다. 남는 것은 가정인데, 비록 핵가족인 가정이 많지만 평판조회와 핵심인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소중하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 늘고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데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생활이 더 좋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해야 한다.

핀란드의 경쟁력 중 하나로 자리한 것으로, 핀란드가 사회적으로 창안한 ‘이야기 대화법’을 자녀들과 연습하며 존중하고 공감하는 대화법부터 실천해보자.

- **받아적기** : 대화의 규칙이 분명하다.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 적지만 한다(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말하는 사람은 신중해지고, 듣는 사람은 경청하게 된다).
- **읽어주기** : 듣고 적은 사람이 적은 내용을 읽어주면서 말하는 이의 생각이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한다(말한 사람은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적은 사람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 **고쳐주기** : 말한 사람이 수정을 요청한 대로 적은 내용을 고쳐서 다시 읽어준다(만약 부모가 듣고 적은 역할을 한다면 중간에 아이의 말에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으로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다. 고로, 집에서 먼저 ‘인성’을 길러야 한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미래 역량의 토대가 될 것이다. 공감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생활은 지금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일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㉞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개학을
기다린다

재능기부 활동가
김광학 회원





37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신기하게도 서운하지 않았다. 서운함이 전혀 없을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헛헛함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물리 교사에서 방과 후 수업 교사이자 사서 도우미로 그는 다시 선생님이 되어 돌아왔다. 학교 종이 울리면, 김광학 회원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린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37년 차 물리 교사에서 신입 교사로

2018년 8월, 부산 남구 동천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김광학 회원은 37년간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아니, 쉼표를 찍었다. 퇴직 후 그가 곧장 향한 곳은 부산 퇴직교직원센터. 퇴직 교직원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를 돕는 기관이었다. 다행히 집 가까이 있는 동백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저학년 학력증진반 학생들의 학습 도우미를 찾고 있었고, 곧장 2학기부터 출근을 결정했다.

“퇴직 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쉬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할 수 있는 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매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마른 땅에 물이 스미듯 가르치는 내용을 흡수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신입 교사 시절 느꼈던 설렘이 다시 찾아오는 듯했다. 이듬해인 작년 1학기부터는 중학교 방과 후 수업의 과학반도 맡게 되었다. 오전 수업이 있는 해운대구 동백초등학교에서 오후 수업이 있는 사하구 장평중학교까지 거리는 약 27km.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먼 곳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내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라며 단번에 수락했다. 물리 교사로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학생들이 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친근한 동요 멜로디에 실어 ‘과학송’을 만들어 가르치곤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요 이론을 동요로 만들어 가르쳤더니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제법 합니다. 허허허.”

금요일 저녁 귀갓길, 다시 오랜 시간이 걸려 집에 돌아오면서도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난다. 앞으로 20년은 꼬떡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2모작 무대에서 꿈을 펼치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는 시간에는 김광학 회원도 학생이 되어 공부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오래 가르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다. 퇴직 후 3개월 만인 2018년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60+ 직업소양교육 시니어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을 찾아가 어르신 일자리 직업소양교육도 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강의를 들려드리기 위해 저도 늘 공부를 합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국교육인증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노인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도 취득했구요.”

2019년 1월에는 중학교 무한상상교실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산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과정, 11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지킴이 교육 과정도 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어르신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스캠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복지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퇴직 후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는 8세 어린아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가르칠 수 있는 만능 교사가 되었다. 더욱더 좋은 것은 이토록 바쁘게 살아도 남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 스케치북의 여백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듯, 일주일 일정을 수첩에 적으며 그는 여가에 할 일을 찾아낸다. 주말에는 가끔 부산광역시 무료급식봉사센터에 나가 배식 봉사도 한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며 ‘홍길동’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지난해 2학기부터 그는 해운대구 송정초등학교에서 오전 시간에 도서관 사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웃음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복이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올리면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달려와 그의 옆을 따라다니며 쉴 새 없이 재잘재잘 떠들어댄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1학년 학생들이 제게 쪼르르 달려와서 묻더라고요. ‘선생님, 방학 끝나도 계속 여기 계실 거죠?’라고요. ‘그래, 할 수 있다면 너희 졸업할 때까지 있으마’ 했더니 까르르 웃으며 또 교실로 달려가요. 선생님 한 마디에 호호 깔깔 웃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바라만 봐도 좋아요.”

매일 웃던 아이가 어느 날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슬쩍 다가가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잠시 짬이 날 땐 학생들과 연날리기 등의 전통 놀이도 함께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일찍 출근해 길가를 청소하고 화단 잡초도 뽑는다. 등굣길에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학교를 바라보았을 때 그곳에 예쁜 꽃이 있기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매일 소매를 걷어붙인다.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고, 그러니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공식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소하지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더라고요.”

퇴직 후 생긴 여유 시간을 그는 작지만 보람찬 행복으로 채우고 있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의 마음이 그것을 따르자고 말한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특히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우리말·우리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희망을 듬뿍 안겨주는 것이예요.”

더러 학생들이 그에게 나이를 물어 올 때면 그는 “글쎄, 나도 내 나이를 잘 모르겠는 걸” 하고 답한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열정이 식지 않는 한 나이를 잊고 산다고 한다. 여전히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과학송’을 잘 부를 수 있는 목청을 지녔다. 교문이 가까워져 올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가까이 들리고, 그곳에 자신의 행복이 있는 듯하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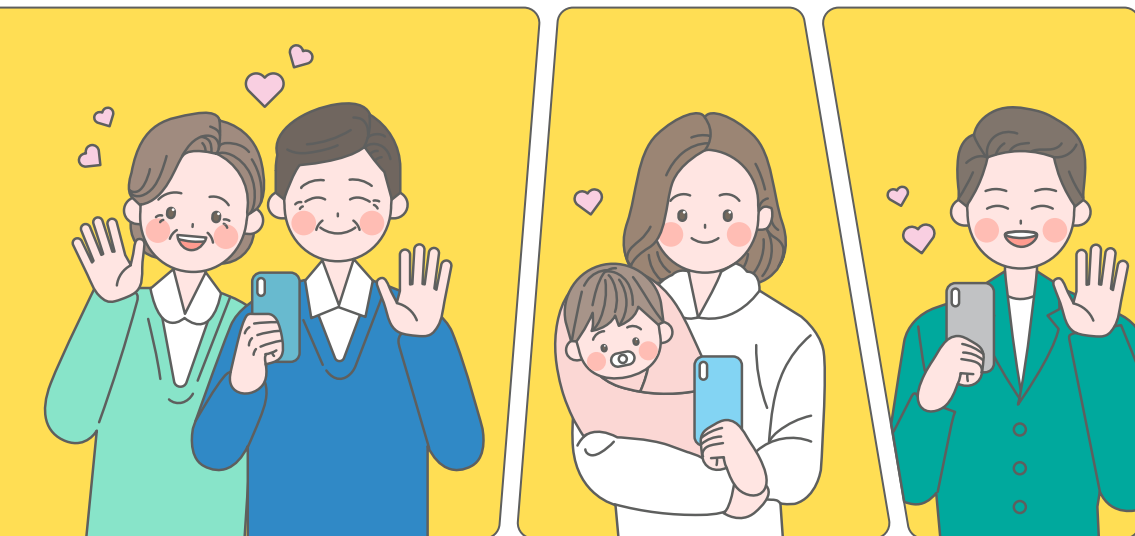
“세상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고, 그러니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공식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소소하지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5

끝난 게 아니다



한시름 덜었다 싶었더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역전되는 건 순식간, 철나의 방심과 해이를 경계해야 할 타이밍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주목하자. 나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에 대하여.

글. 편집실

1 사람 간 간격은 2m 이상, 마스크 착용은 필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핵심적인 방법.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 때문에 사람이 밀집한 곳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피하는 것이 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황상 어렵다면 적어도 두 팔 간격만큼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한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은 생략할 것. 물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TIP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얼굴 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 밀착 시켜 착용한다. 마스크 안쪽에 휴지나 수건을 덧댈 경우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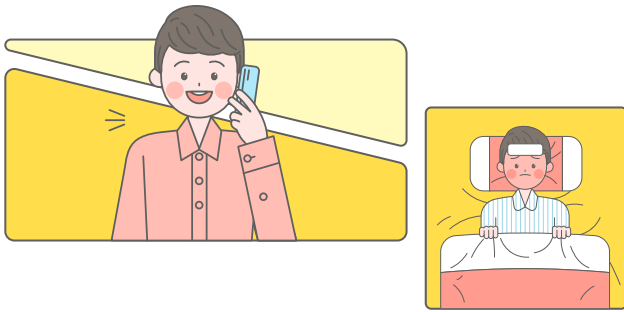
2 30초 이상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기

바이러스가 몸에 묻게 되는 주요 경로는 손이다. 때문에 오염되었을지 모르는 손을 자주, 꼼꼼히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손 씻기는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에서 돌아온 후,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 등 수시로 하되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씻어야 효과적이다. 만약 물로 씻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침방울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휴지, 손수건, 옷소매 안쪽 등으로 입을 가려야 하는데, 손을 사용할 경우 다른 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IP

수시로 손에 닿는 휴대폰, 키보드 등의 청결도 신경 써야 한다. 바이러스는 딱딱한 표면에 서 더 오래 살아남으므로 소독용 에탄올을 솜이나 천에 묻혀 표면을 자주 닦아주면 된다.



3

아프면 집에서 휴식하고 **평소에 건강 챙기기**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3~4일 집에 머물러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코로나19 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안전하다. 만약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또한 대면 대화나 함께 식사하는 행위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는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혹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자. 특히 면역력이 약해 감염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중증 또는 위중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터. 고위험군은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만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TIP

평소 건강 관리와 면역력 향상을 위해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에 신경 써야 한다. 술과 담배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다.

4

하루 두 번 이상, **충분한 환기**

숨 쉬는 공기 중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침방울이 떠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주 환기해 오염된 공기 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창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최선이며, 그게 어렵다면 하루에 두 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할 때는 공기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모든 문과 창문을 10분 이상 활짝 열어두어야 효과적이다. 더불어 생활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는 터. 손이 자주 닿는 물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로, 아이들 손이 닿는 장난감의 경우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시키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수가 오가는 공간과 공용 물건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승강기 버튼, 출입문, 손잡이, 난간, 스위치, 마트의 카트 등은 매일 소독해야 한다. 소독 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다.

TIP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티슈, 에탄올 70%의 알코올, 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으로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제조사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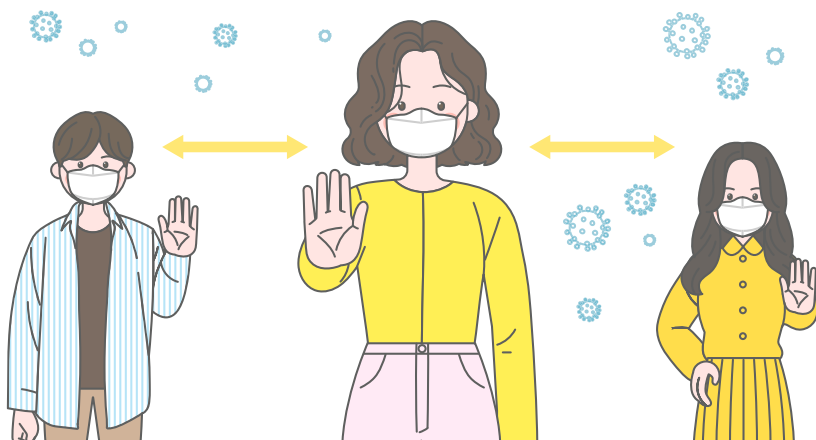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깝게**

코로나19 극복은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더 붙어 배려와 위로가 힘을 북돋워 준다는 점을 기억하자.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접 만나는 것은 삼가되, 자주 연락하며 마음으로 함께할 기회를 만들 것. 또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간혹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럴 때일수록 가족, 친구, 동료 등과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만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 및 격리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1442)로 연락하면 된다. ㉠

TIP

과도한 미디어 몰입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불필요하게 키운다. 또한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으므로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봄과 여름 사이의 불청객, 감염병

해마다 이맘때면 들려오는 계절성 감염병 소식은 올해도 여전하다. 면역력이 높다 해도, 손을 열심히 씻는다 해도 완벽한 예방이 어려운 것이 문제. 하지만 무신경한 쪽보다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억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백배 이롭다. 봄과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감염병에 대하여.

글. 편집실



극심한 피로감과 황달 'A형 간염'

A형 간염은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혹은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오염된 물 섭취 등으로 감염이 된다. 잠복기는 평균 4주로 매우 긴 편이다.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며 피로감, 식욕 감퇴·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후 각막과 피부에 황달이 나타나며 소변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전신에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 치료는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때문에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생후 12~23개월의 모든 소아가 A형 간염 접종 대상이지만, 과거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았다.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만성 간 질환자, 불법약물 남용자, 혈액응고 환자 등 고위험군도 항체 유무를 체크해보아야 한다. 더불어 생활 속 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5°C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라지므로 음식은 가급적 익혀서 먹고, 물도 끓인 것을 마시도록 한다. 또한 용변 후 물을 내릴 때는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하며,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안전하다.



볼 부위의 부기와 열감 '유행성이하선염'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귀 아래 침샘인 이하선에 염증이 발생해 부종이 생기는 증상으로, 2~6세 유아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 잠복기가 14~18일로 길고, 무증상 감염이 약 20%인데다 감염 속도도 빨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한다.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리게 되면 볼이 붓는 것과 더불어 피로감·식욕 부진·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긴 하지만 뇌수막염·고환염·난소염·췌장염 등 합병증의 위험도 있다. 때문에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씩 MMR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좋으며,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회복될 때까지 단체생활은 삼가야 한다. 증상은 1~3일째 심해졌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일주일 정도면 호전된다.



고열을 동반한 소화기 증상 '췌췌가무시증'

야외 활동이 늘어날수록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췌췌가무시증은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보통 1~3일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발열·두통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후 구토·복통·발진·근육통을 동반한다.

췌췌가무시증은 특별한 예방 백신이 없는 데다 털진드기가 매우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급적 긴 옷을 입거나 토시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길 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고, 풀밭에 앉거나 눕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만약 앉아야 한다면 돗자리를 사용해 진드기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장 샤워를 해야 한다. 입었던 옷과 사용한 돗자리 역시 가급적 빨리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에 걸린 듯한 마른기침 '레지오넬라증'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는 질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24~45°C의 따뜻한 물에서 주로 번식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 환자가 집중되는 편이다. 가볍게 지나가는 독감형, 그리고 발열·기침·근육통·두통 등 독감과 증상이 비슷한 폐렴형으로 구분되는데, 갑작스러운 고열과 가래가 별로 없는 마른기침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폐렴형의 경우 신부전·저혈압·쇼크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데다 당뇨, 암, 만성폐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을 앓고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치명률도 올라가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예방법 중 하나는 충분한 환기와 에어컨 관리다. 공기 중 흡입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만큼 습기가 많은 에어컨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다. 소홀하기 쉬운 자동차 에어컨 필터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수기, 샤워기 등 물이 닿아있는 물건도 청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안전하다.



손·발·입에 생기는 통증성 물집 '수족구병'

생후 6개월에서 5세 이하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족구병. 콧물·대변·물집의 진물 등의 접촉으로 장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생기는 질환이다. 이름 그대로 손·발·입에 3~7mm 크기의 타원형의 물집이 생기는데, 간혹 손바닥과 발바닥, 손가락 사이, 혹은 뺨 안쪽, 입술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고열·식욕부진·피로감·인후통·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수포도 사라진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뇌수막염, 뇌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청결에 신경 쓰는 것이 최선이다. 아직 수족구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 손 씻기, 양치질 같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불어 손이 자주 닿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을 자주 소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㉔



집에서 찐 살?

집에서 뺀다!

홈 트레이닝 유튜버 총집합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개월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야말로 ‘집콕’이 생활화됐다. 그러다 보니 운동량 부족으로 갑자기 살이 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홈 트레이닝 콘텐츠가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과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홈트’ 유튜버를 소개한다. 홈트를 통해 건강한 6월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

글. 편집실



옆집 부부와 함께 운동하는 기본, ‘강부부’

국내 피트니스 관련 채널 중 최대 구독자를 지닌 초대형 유튜버다. 200만이 넘는 구독자는 그간 강부부가 다년간 노력해 온 결과다. 2014년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한 강부부의 운동 콘텐츠는 자신의 운동일지를 적는 데에서 시작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주는 홈트를 목표로 하는 강부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옆집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것 같은 즐거운 구성까지, 일반인을 위한, 일반인에 의한 강부부의 홈트 영상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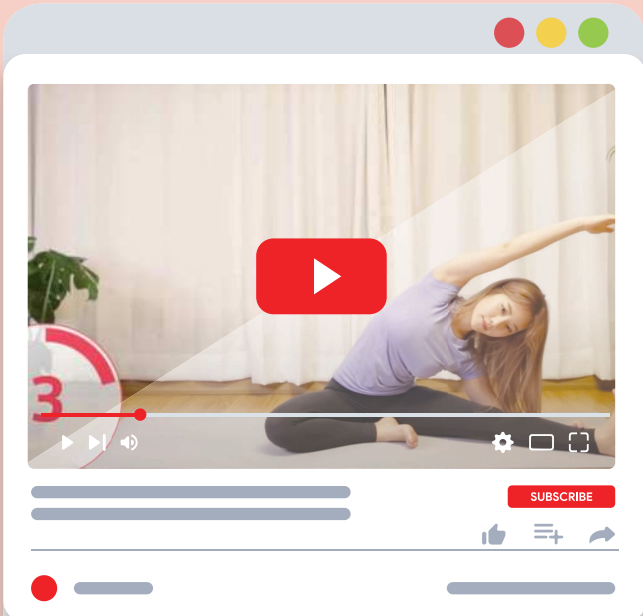
다이어트 성공러, ‘다노TV’

20kg을 감량하며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제시(다노언니)의 노하우를 담은 다이어트 채널이다. 지속가능하고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방법을 지향하는 다노TV는 습관을 바꾸는 ‘습관성형 다이어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는 유튜버 제시의 바람처럼 건강하고 유익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초보 다이어터들에게는 필수적인 존재. 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 꾸준한 운동습관을 들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채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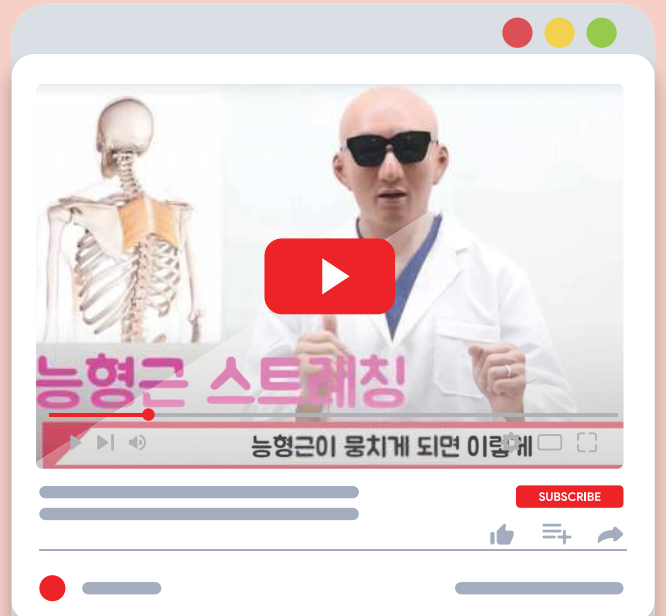
오롯이 나만을 위한 요가, '요가소년'

요가는 수양이라고 했다. 요가소년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요가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가 홈트 유튜버다. 그는 즐겁고 안전한 요가 수련의 길로 23만 명의 구독자를 인도한다. 10분·20분·30분, 1시간 요가 등 시간별 요가부터 부위별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요가까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이다. 단순히 운동을 따라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요가를 온 몸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요가소년의 생각.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요가소년의 홈트는 구원이 될지도 모르겠다.



국가대표 '애플힙'의 노하우, '힙으뜸'

몇 년 전, '애플힙'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스포츠 트레이너 심으뜸이 유튜버로 돌아왔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애플힙 운동을 중심으로 기초운동, 홈트레이닝, 운동챌린지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한다. 꾸준한 조회 수와 55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가 홈 피트니스계의 샛별이라는 수식어를 증명해준다. 기본에 충실한 운동으로 헬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이 힙으뜸의 장점. 헬스장에서 버벅거리던 '헬알못(헬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필라테스, 재활 전문 유튜버, '피지컬 갤러리'

가장 핫한 운동이 있다면 단연코 필라테스를 빼놓을 수 없다. 필라테스는 체형교정과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운동이지만 많은 연예인의 몸매 관리 비법으로 공개되며 대중에게 퍼져나갔다. 피지컬 갤러리는 필라테스와 PT 전문 유튜버다. 다양한 운동법과 더불어 디테일한 체형교정 운동 등과 함께 재미있는 콘텐츠로 구독자 175만명을 자랑한다. 유익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최근에는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운동과 관련해서 온라인 클래스의 교육자료 사용에 대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

가족 ~~~~~ 당신의 가족은 안녕한가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유치원이나 초·중·고는 개학 연기로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란 이름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평상시보다 조금 자주 전화드리는 일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눈에 띄입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입니다. 'The-K 마음쉽'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족과의 관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건 어떨까요?

글. @다인

QR코드를 스캔하면

The-K 크리에이터 강초미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해보신 The-K 마음쉽 이용후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박목월

지상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깎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 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बैठ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후략)



가족이란 이름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인연

작가 최인호는 35년간 샘터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연재했습니다. 그가 연재한 소설 중 하나인 '일곱 켄레의 신발'은 박목월의 '가정'이란 시로 시작합니다. 박목월의 시에서는 가정을 아홉 켄레의 신발로 비유하면서 집에 도착하면 신발을 벗고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인호는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집안사람이 원수이다'라고 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전생의 철천지원수의 악연으로 맺어진 인연이 집안 식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안 보면 그만이라 해도, 가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편, 김수영 시인의 '나의 가족'이란 시에서는 가족이라는 인연의 필연과 조화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할 때'라고 합니다.

가족의 계산법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셈이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 것을 따지지 않으니, 언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조금 더 희한한 것은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새로운 가족을 낳고 길러보아야 그 셈법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내리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 가족

문제가 없는 가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가정은 똑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같아 보이는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이유가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모두 따뜻하고 끈끈한 가족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애라는 것은 뭘까요. 가족은 힘들고 가슴 아플 때 더욱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들

떠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 오직 가족들만이 자신에게 다 가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해 비난과 질시로 가득 찬 시선을 받을 때도 오직 가족들만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어 줍니다.

비록 지금은 아홉 켄레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가족들의 지지가 없다면 무언가 허전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기쁨을 가족과 나눈다면 그 기쁨이 두 배 아닌 열 배가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적절한 거리두기로 유지하는 가족애

맑은 공기나 물처럼 늘 함께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고, 너무 익숙해진 탓에 배려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로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에 기다릴 필요도, 이유도 없기에 그리움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하면 가족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로에게 좀 더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배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행동, 태도, 약속 등 사회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념적 규범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가장 가까운 타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관용적이며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지만, 이러한 관계의 거리두기가 잘 지켜진다면 훨씬 편안하게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가족애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에 인색하고 어색했던 나를 돌아보고, 더 좋은 가족 간의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The-K 마음쉼'을 두드려주세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상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The-K 마음쉼'이 응원합니다. ☎

「The-K 마음쉼」이용 안내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직 회원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후 가능)
상담 신청	The-K 마음쉼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신청 가능	상담 방법	대면상담, 화상·전화 상담
상담 횟수	1인당 최고 5회기 무료 상담 가능	상담 부문	교권침해, 직무 스트레스, 우울·불안·분노, 부부 문제, 자녀 양육, 가족 내 의사소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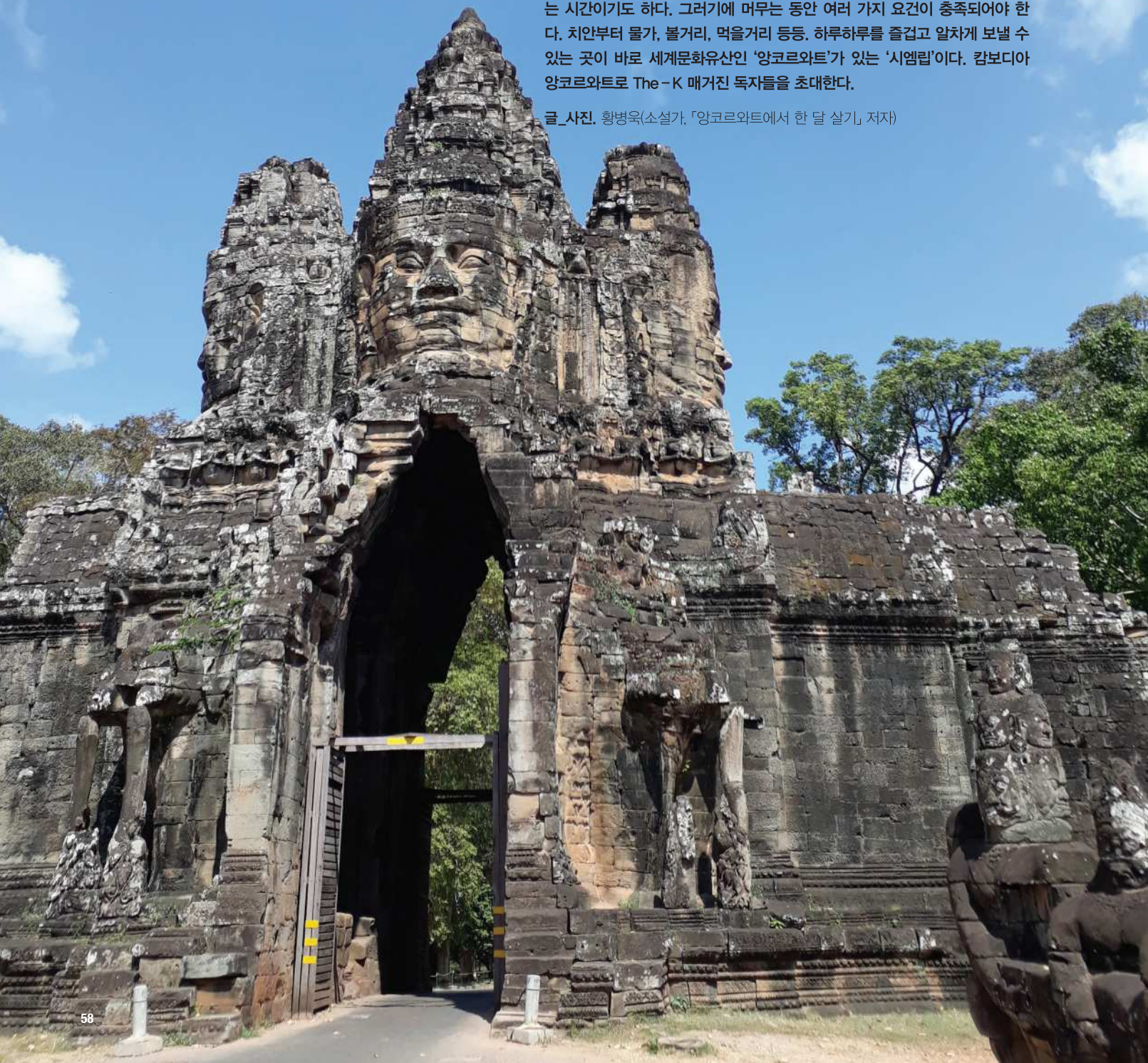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Cambodia SiemReap  Angkor Wat

행복지수가 플러스 되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한 달 살기’

한 달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때쯤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치안부터 물가, 볼거리, 먹을거리 등등. 하루하루를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이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The-K 매거진 독자들을 초대한다.

글_사진. 황병욱(소설가, 「앙코르와트에서 한 달 살기」 저자)



「더-쉽」은 전 세계 각 도시의 한 달 살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살기는 어렵지만, 그간 「더-쉽」을 통해 힐링할 수 있어 좋았다는 많은 독자 의견들을 반영하여 이번 6월호에도 「더-쉽」 코너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01



02

영국 BBC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혼자 배낭 메고 돌아다닐 거라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겠지만 가족, 아이들과 함께 한 달 머물기를 한다면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을 추천한다.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할 만큼, 시엠립에는 앙코르와트 외에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 한 달 내내 숙소에서만 지내며 휴양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가족, 아이들과 함께 탐험과 모험, 역사, 액티비티 등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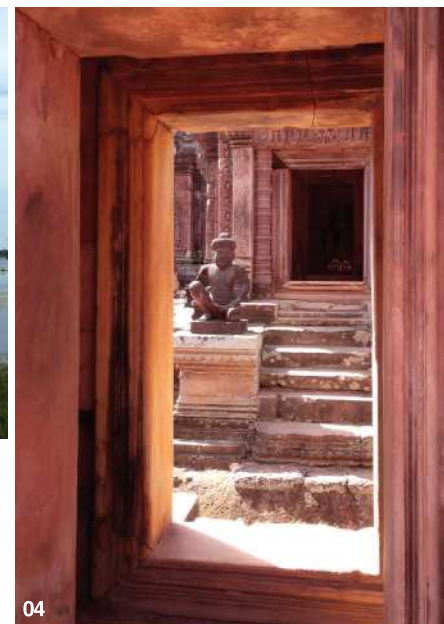
한 달 계획을 세울 때 크게 콘셉트를 세 개로 나눠서 짜보면 좋다. 열흘은 유적 탐방, 열흘은 패키지에 없는 시티투어, 마지막 열흘은 말 그대로 휴양으로 나눠보자. 앙코르 유적지만 제대로 둘러보더라도 열흘은 더 걸린다. 이왕이면 도시락을 지참해서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고즈넉한 고대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을 권한다. 자전거를 타고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길을 다니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평온해지고, 크메르 민족의 따뜻하면서 순박한 숨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유적지 탐방을 끝냈다면 시내 곳곳에 숨어 있는 소규모 박물관이나 공원, 재래시장 등을 돌아다녀 보자. 시내에는 작은 사찰을 비롯해서 민속촌, 국립박물관, 디우갤러리, 팀스갤러리, 사립박물관, 가죽 공방, 실크 공방 등이 곳곳에 숨어 있으며,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앙코르 유적지를 볼 수 있는 관광 상품과 짬라인, 카누체험(톤레삽 호수-동양 최대 호수), 세계무형문화재인 압사라 공연, 서커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

시내 투어까지 마쳤다면 남은 시간은 말 그대로 휴양을 해보자. 그럴싸한 숙소에 머물면서 마음껏 내 시간의 주인이 되자. 숙소 수영장에서 수영만 해도 되고, 가끔씩 시엠립 강가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느긋하게 산책하는 것도 좋다. 여유가 된다면 시엠립 외곽에 있는 초기 유적지인 꼬발스피언이나 프놈꿀렌, 꼬께, 뿌레아 비히어를 다녀보는 것도 좋다. 단기 여행에서는 가기 어려운 곳이니 한 달 살기를 할 때가 기회다.



03



04



05

01. 뿌레아 칸
'신성한 검'의 뜻을 가진 이 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가 아버지를 위해 지었다.

02. 앙코르 톨
앙코르 톨의 부조. 앙코르 톨은 불교 사원이지만
출구는 무히 압사라를 부조로 새겨놓았다.

03. 니악 뽀안 연못
니악 뽀안 사원 입구에 있는 연못. '뽀리를 튼 뽀'이란 뜻의
이 사원은 석가를 위해 지어졌다.

04. 반띠 스투이
'여자의 성(城)'이라는 뜻의 이 사원은 '크메르 예술의 극치'이며
'크메르의 보석'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05. 톤레삽
동양 최대의 호수인 이곳에는 아이들이 세숫대야를 타고 다닌다.

맑은 웃음이 유쾌한 크메르 민족의 매력

캄보디아는 세계 최대 빈민국 10위 안에 들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곳이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로 열기설기 지은 집에 화분 하나씩은 꼭 놓여 있다. 하루 10달러를 힘겹게 벌지만 사시사철 그들은 꽃을 키우고, 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또 이들에게 최신 휴대폰이나 다른 신기한 것들을 자랑하면 그들의 반응은 하나다.

“우와~ 멋지다. 이런 게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끝이다. 이들은 ‘나는 그것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들은 탐욕과 욕심, 이기적인 배타심이 자신들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건지 모르겠다.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다면 그들과 함께 소풍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웨스트바라이나 프라꼬 같은 유원지가 시엠립 근방에 있다. 휴일이 되면 그들은 가족 단위로 휴양지를 찾는다. 아이들은 튜브를 타며 수영을 즐기고, 어른들은 집에서 해온 맛깔스러운 음식에 맥주를 즐긴다. 이들과 소풍까지 갔다면 꽤 깊은 친분을 맺은 것이다. 이들이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면 거절하지 말자. 집으로의 초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친분을 나타내기도 하며 손님에 대한 예의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물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삼겹살 정도는 사 가지고 가자. 집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의가 깎뚝하며 항상 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사계절 여행이 즐거운 곳

동남아는 한국보다 덥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주로 겨울철에 동남아를 많이 찾는다. 실제로 시엠립의 겨울 날씨의 영상 18~25도 사이다. 이들에게는 추운 날씨다. 어떤 사람은 패딩까지 입고 다닌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라서 관광객이 적지만, 우기 때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건기 때처럼 해가 짹짹 나지 않고, 바람이 시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숙소가 비수기라 최대 10~30%까지 할인을 한다. 비는 5분, 10분 퍼붓다가 금세 그친다. 캄보디아 설날이 있는 4월에는 시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11월은 톤레삽 호수에 침입한 참파국(베트남 중부지방의 말레이계의 구 참족이 세운 왕국)을 물리친 기념으로 ‘물 축제(Water Festival)’가 열린다. 사시사철 언제든 한 달 살기에 후회 없는 곳이다.



06. 앙코르 와트

‘도시 사원’이란 뜻으로 수리아바르만 2세가 지은 사원이다. 건축학적, 미학적, 종교적 상징성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07. 프라꼬

시엠립 근처에 있는 유원지. 휴일이면 가족 단위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08. 디우갤러리 사진들

캄보디아의 매력에 빠져 30년 넘게 살고 있는 프랑스 사진작가 디우의 작품이다.



09. 뱅 밀리아

시엠립 외곽에 있는 사원으로 애니메이션 ‘천공의 섬 라퓨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10. 캄보디아 전쟁박물관 전시품

크메르 루즈 전쟁 때 사용한 무기와 참상을 볼 수 있다.

여행 콘셉트에 맞는 숙소 선택하기

여행 콘셉트를 나눴다면 거기에 맞는 위치에 머무르면서 열흘마다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시엠립에는 수천 개의 숙소가 있다. 그만큼 숙소마다 다양하고,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니 세밀하게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

가족 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조리가 가능한 펜션과 콘도, 아파트가 있고, 수영장에 놀이기구까지 있는 리조트 독채도 있다. 리조트에서는 가족 공예 만들기부터 캄보디아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웬만한 곳은 다 수영장이 있으니 일반 숙소에 머물러도 상관없다. 유적지 탐방 때는 유적지 근처의 일반 숙소에 머무르되 자전거 대여가 되는 곳에 머무르자. 두 번째 숙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마음껏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정해보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펌스트리트나 올드마켓 같은 시내 한복판은 피하자. 숙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답답하고, 관광객들이 많아 시끄러울 수 있다.

전 세계 음식이 한 곳에!

고수나 동남아 특유의 끈끈한 냄새를 버티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시엠립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매일 천 명 이상씩 드나드는 곳이다. 그만큼 전 세계 요리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 입맛에 따라 익숙한 음식을 찾아서 먹으면 된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전문 비건 레스토랑도 있고, 티본 스테이크를 단돈 16달러에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래도 현지 음식을 먹고 싶다면 야시장이 열리는 도로, 쩡유에 방문하기를 권한다. 오후 5시에 장이 서고, 밤 10시면 문을 닫는다. 도깨비 시장처럼 다양한 잡화점과 음식점 천막들이 도로변에 길게 쭉 들어선다. 이곳에는 캄보디아 BBQ부터 생선요리, 다코야키 같은 튀김류 등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다. 한국 음식이 생각난다면 걱정하지 말자. 배낭족들을 위해 삼겹살을 무제한 제공하는 ‘대박식당’이 있고, 매일 메뉴가 바뀌는 ‘수원식당’의 백반은 4달러다. 김치는 한국 마트인 김(KIM) 마트에서 사도 되고, 한인 식당에서 구입해도 된다. 식재료는 뉴앙코르마켓에서 구매하면 신선한 재료를 정가제로 구입할 수 있다. 한 달 살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2~3일 전에 나 자신에게 엽서 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느낀 점도 좋고, 앞으로의 계획도 좋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한국으로 엽서를 보내자. 여행의 여운이 가실 때쯤 자신이 앙코르와트에서 보낸 엽서를 받은 아이들은 여행의 또 다른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㉞



11. 물 축제

물 축제는 캄보디아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날이다. 먹을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행사가 거리에 펼쳐진다.

12. 아파트

시엠립 시내에 있는 아파트다. 한 달에 500\$인데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다.

13. 대박식당

배낭족들의 성지 같은 곳이다. 삼겹살 무제한 제공이 6\$이다.

14. 수원식당 백반

수원식당 백반은 매일 메뉴가 바뀐다. 감자탕에서 보쌈까지 4\$에 즐길 수 있다.

15. 크메르 치즈

캄보디아식 치즈로 치즈 고유의 냄새가 강하다.

16. 크메르 찹쌀떡

찹쌀떡 위에 코코넛을 잘게 썰어 주는데 엄청 달콤하다.



TIP

앙코르와트 여행 시 주의점

- 화폐는 US달러가 통용되고 있다. 단, 캄보디아 내에서는 2달러가 거의 통용되지 않으므로 2달러는 준비하지 말자. 또한 위조 지폐의 오해가 있는 현돈이나 많이 구겨진 돈은 사용하지 말고 가급적 새 지폐를 준비해가자.
- 유적지 출입 시 민소매, 무릎 위 올라오는 치마, 반바지는 입장 금지가 되는 점을 주의하자.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The-K의 대표 상품, '장기저축급여' 스토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효율적이고 안정된 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회원들이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이며, 회원만을 위한 급여, 대여, 복리·후생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회원들에게 사랑받아 온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회원 약 83만 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장 대표적인 적립식 저축상품입니다.

1971년 시행돼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사와 함께해온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1구좌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90만원(1,500구좌)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의 탄탄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최근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도 2019년 9월 1일 시행 기준 연복리 3.74%(변동금리)의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복리 적용으로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장기저축급여만의 특징점입니다. 퇴직 후에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해 연금처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와 연계하여 2015년 출시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재직 중 납입한 장기저축급여 저축금액을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한 직후부터 높은 상한구좌수, 원하는 납입금액으로 퇴직 시까지 오랜 기간 가입이 가능한 만큼 더욱 압도적으로 붙어가는 연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퇴직 후 나눠받으며 체계적으로 저축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해 2월 말로 정년·명에 퇴직한 회원 9,551명에게 총 8,834억원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했으며, 최고액 수령자는 무려 2억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통계를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쉽게 The-K 매거진에 담아보았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수납 누적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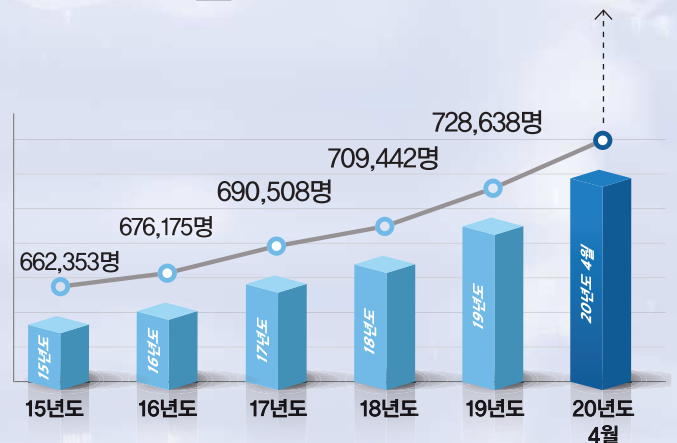
32조
7,675억 돌파

*2020. 4. 30 기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

2020년
4월 **731,700명**





blog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장기저축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장기저축급여 특장점 편
[교직원공제회연구소 UNBOXING Vol.15]

평균 가입 구좌 수

587.2구좌

*2020. 4. 30 기준



25년 이상 가입자 수

63,279명



장기저축급여
평균 가입 기간

1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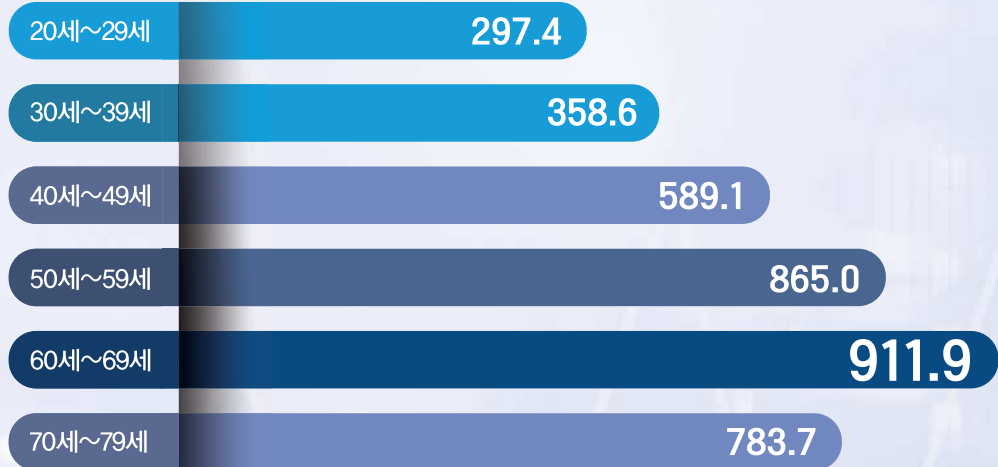
지역별 평균 구좌 수 Top10



1. 전라북도 **632.7구좌**

- | | |
|-----------|-------|
| 2. 서울특별시 | 619.8 |
| 3. 경상북도 | 616.0 |
| 4. 광주광역시 | 603.4 |
| 5. 전라남도 | 602.9 |
| 6. 대전광역시 | 600.0 |
| 7. 울산광역시 | 599.5 |
| 8. 충청남도 | 596.6 |
| 9. 강원도 | 593.7 |
| 10. 부산광역시 | 591.2 |

연령대별 평균 구좌수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급여금을 신청한 회원 수

- ※ 2020. 1. 1 ~ 4. 30까지 누적 회원 수
- ※ 퇴직대상자 : 분할급여가입대상자 중 퇴직급여금을 500만원 이상 보유한 회원
- ※ 퇴직과 동시에 신청한 건수만 산출

퇴직대상자 10,805명
 퇴직생활급여 518명
 분할급여금 6,207명

합계 **6,7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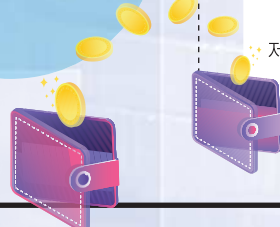
체크 포인트 1

‘복리’로 돌려 받는다!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복리: (원금+이자)에
대해 이자 발생

‘이자소득세’가 적다!

15.4% 일반
금융상품 < 0~3%대
장기저축
급여



체크 포인트 2

안전성 보장	높은 급여율 (이자율)	세제 혜택	회원자격 부여
안전성 보장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	연복리 3.74% (변동금리, 2019.9.1. 기준)	금융소득 종합 과세 제외 - 0~3%대 이자 소득세율 부과 소득세법 제63조 의거	우수한 대여제도 및 복지혜택 이용 가능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가 좋다고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직 와닿지 않으셨나요? 교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크리에이터 박지원 선생님께서 장기저축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 교육가족들을 취재해주셨습니다. 교육가족의 실제 생생 후기, 한 번 들어볼까요?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多樂房)”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장기저축급여, 자주하는 질문”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교육가족의 실제 후기를 듣고 싶어요!

※본 인터뷰 내용은 기사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소개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 초등학교 20대 A교사

장기저축급여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해나가니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특히 더 좋아요.”



○○ 중학교 30대 B교사

“저는 지금 15년차 교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신규교사일 때는 한 달 벌어서 모두 써버리는 지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교사로 퇴직하신 부모님께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매월 받는 월급의 실 수령액이 줄어들어 절약할 수 있고,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몇 차례 거듭 말씀하시며 장기저축급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금도 돈을 절약하는 습관은 들이지 못했지만, 장기저축급여는 꾸준히 가입해왔기에 지금은 꽤나 많이 모았어요. 제가 만약에 장기저축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 같네요.”



○○ 초등학교 40대 C교사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아요. 아이들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크니, 자연스럽게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구좌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하니까, 오랜 기간 유지되는 안전성이 그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성 상품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000만원씩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관련법에 의해서 원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특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위의 생생 후기를 세 단어로 요약해보자면, ‘간편함’, ‘노후자금’,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표 상품으로, 오랜 기간 교육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장기저축급여’의 강력한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현직 교사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인 The-K 크리에이터 박지원 선생님께서도 아래와 같이 장기저축급여 이용 소감에 대해 전달해주셨습니다.

저도 현직 교사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꾸준히 7년간 장기저축급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업무로 다른 은행을 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가입 절차가 편리하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어 장기저축급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월 장기저축급여로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들어 아깝기도 했지만 서서히 불어나는 돈을 보고 있으니 노후대비가 든든해지면서, 점차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신규 교직원 선생님들, 장기저축급여 저축금액은 나중에 교육가족분들에게 큰 자신감이 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를 The-K 크리에이터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금융 환경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 복리효과와 안정성을 갖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생애 재무 설계에 든든한 도움이 될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통해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퇴직할 때까지 원하는 납입금액으로 체계적인 저축이 가능하며, 오래 납입할수록 연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와 함께라면 든든하고 행복한 미래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100세까지 든든한 건강지킴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줄 ‘보험’이다.
건강한 인생을 지켜줄 보험을 고르는 방법이 고민된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를 살펴보자!
든든한 재무적 안전장치는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질 확실한 대비책이 되어줄 것이다.



걱정마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는

보험료 인상없이 (비갱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드려요!

늘어! 100세 장수 시대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
만기생존시 특약 기납입 보험료
100% 환급 (환급형 가입시)

오늘 또 성대가 팔생이네요. 이 지긋지긋한 성대결절 ㅠㅠ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는 교직원 3대 만성질환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질환 및 공상퇴직까지 보장해 준대요!

교직원 직업병까지 제대로 보장해 주는 교직원①Life

교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3가지 특약 마련! (해당특약 가입 시)

교직원 3대 만성질환 보장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교직원 생활질환 보장
(눈 및 부속기관이 질환, 귀 및 목지출기의 질환, 요로결석)

교직원 공상퇴직 보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상태로 퇴직하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에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 상담

보험 콜센터

공제회 홈페이지



(1577-3993)



▲상담 신청 하기



보험 가입할 때
 내가 원하는
 특약만 골라서
 맞춤 설계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고민이네요..



다양한 특약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는

**다양한 보장설계로
 개인별 맞춤보험 설계도 가능해요!**

총 40개 특약 중 필요한 특약만 골라 맞춤보장 가능

정기특약	입원특약	암수술 특약	교직원 3대만성질환 치료특약	소액암 진단특약
마음질환 진단특약	응급실내원 보장특약	뇌혈관질환 입원특약	재해골절 진단특약	대상포진· 홍역 진단특약



교직원라이프
 종합공제(2002)는
 총 40개 특약 중
 필요한 특약만 골라
 맞춤 보장이
 가능합니다!

교직원라이프
 재정전문위원

이제 보험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되겠어요!



교직원 3대 만성질환을
 보장하면서
 맞춤 설계까지
 가능하다니!



오직 교육가족만을 위한 혜택!

- ✓ 보험료 인상없이(비갱신) 최대 100세까지 보장
- ✓ 교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3가지 특약 마련
 (해당특약 가입시)
- ✓ 다양한 보장설계로 개인별 맞춤보험 설계

**교직원라이프는 교직원분들의
 더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교육가족의 니즈를 꿰뚫어 글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The-K 크리에이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多樂房)”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 크리에이터’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가까이 소통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소식과 제도, 각종 혜택, 교육·업무현장과 관련된 알찬 소식들을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기 쉽게 제작해 알려주실 다양한 연령대·지역·소속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통해 19명의 회원님들이 직접 전해주는 생생한 현장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The-K 매거진에 소개된 콘텐츠는 The-K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직접 제작해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유튜브에 게재된 콘텐츠이며, 해당 채널에 접속하시면 The-K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솔직하고 유쾌한 콘텐츠가 꼭 게재될 예정이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공감♡

코로나19는 대학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The-K 크리에이터 울산대학교 김희진



- 따뜻한 5월, 코로나19가 우리 대학가에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
- 대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대학 문화의 진귀한 풍경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 온라인 수업의 첫 도입으로 학생들의 집중력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함께 만나보세요!



일상 속 소소하고, 든든한 행복을 위한 교직원복지카드 100% 활용법!

The-K 크리에이터 전북대학교병원 이재만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교직원복지카드’의 존재와 각종 할인·적립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 ‘교직원복지카드’의 소소한 활용법 전격 소개!
- 신한교직원복지카드와 하나교직원복지카드의 알뜰살뜰한 이용 및 할인 혜택, 세부 조건까지 자세히 비교해드립니다.
- 내 라이프 스타일에 200% 최적화된 카드는 무엇일지 행복한 고민 중 이시라면, 교직원복지카드 지금 시작해보세요!



온라인 개학을 맞은 특수학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The-K 크리에이터 경희학교 이성진



- 특수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실제 교육 현장의 고충과 수업 내용을 소개합니다!
- 학습꾸러미와 순회교육의 모습, 특수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만나보세요.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더 효과적으로 수업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교육현장을 보고 싶다면 현직 회원이자 교사인 The-K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정의 달 5월! 사진에 소중한 가족을 담아보세요!

The-K 크리에이터 김해동광초등학교 조은희



- 사진의 소재로 영원히 남길만한 소중한고, 가치 있는 주제, '가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들을 사진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 소중한 우리 가족들의 모든 날, 모든 순간. The-K 크리에이터와 함께 사진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남겨보아요!
- 어린이도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사진 찍는 꿀팁까지 쏙쏙!



저요! 저요!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발문의 달인되기

The-K 크리에이터 前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허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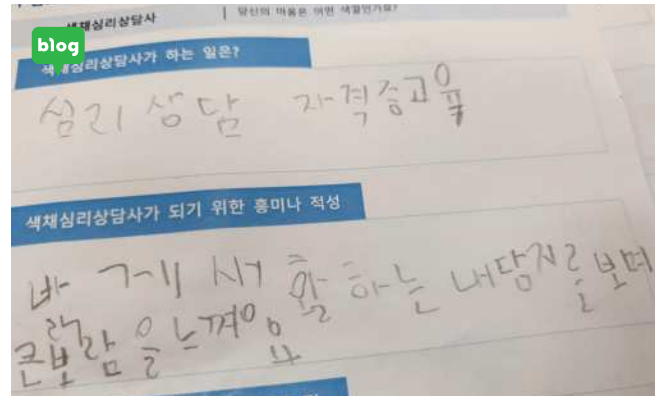


-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고,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참여 의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 The-K 크리에이터의 깊고 유익한 수업 노하우까지 함께 담은, 소크라테스 못지않은 특별한 발문(發問)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실제 수업 적용 예시 문항과 함께 꿀팁 쏙쏙!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 반의 진로교육,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The-K 크리에이터 황지중양초등학교 장규동



- 온라인 교육이 우리 모두의 교실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 현직 교사로서 The-K 크리에이터가 직접 소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학년별, 단계별로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지도방법과 목표를 소개합니다. 교실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유익하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국난극복의 역사와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The-K 크리에이터 동남고등학교 김경민



- 뿌리 깊은 국난극복의 역사와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단합심과 애국심으로 수많은 국가적 재난을 버텨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코로나19로 찾아온 위기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대로 함께 극복해나가는 정부, 기업들과 국민들의 선한 노력들을 모두 모아 The-K 크리에이터가 소개합니다.



The-K 마음심으로 힘들고 지친 내 마음 다독이세요!

The-K 크리에이터 청주농업고등학교 강초미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현직 회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음건강까지 챙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전국 어디에서든 5회기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The-K 마음심 심리 상담 프로그램, The-K 크리에이터가 직접 이용해보았습니다.
- The-K 마음심으로 지친 내 마음의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청방법부터 상담 예약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방 안에서 세계 도서관 탐방하기

The-K 크리에이터 양재초등학교 박정연



- 책과 온라인으로 세계의 다양한 도서관 문화를 경험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 두 손, 두 발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훌쩍 떠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여행 방법을 소개합니다. 해외 유명 도서관 탐방기, 글과 영상으로 함께 봐요!
- 지치고 메마른 감성을 위로할 문화생활이 필요하다면 The-K 크리에이터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세계 유명 도서관을 만나보세요.



여름 대비 벌레 퇴치! 석고 방향제 만들기

The-K 크리에이터 부천신희초등학교 안유빈



-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수업시간에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수업을 위해 교과서를 재구성한 특별한 만들기 체험!
- 현직 선생님인 The-K 크리에이터가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석고방향제, 함께 만들어요.
- 미술·과학·수학 등 교과서 연계과목으로 함께 보는 다양한 활용법을 실제 만드는 방법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슬기로운 방역생활

The-K 크리에이터 前 석포여자중학교 이명희



-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심한 요즘, 가정과 학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자가 소독 방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영상으로 생생하게 알려드려요!
- 실내소독법, 슬기로운 마스크 착용법, 스마트폰 소독법까지!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알찬 소독 방법 가득!
- 올바른 자가 소독으로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는 방법, The-K 크리에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 간편하고 편리한 교육 자료로 활용해보세요! 예방 수칙을 지도할 때도 유용하겠죠?



5월 가정의 달, 나의 결혼이야기 (feat. 결혼기념품)

The-K 크리에이터 금일초등학교 이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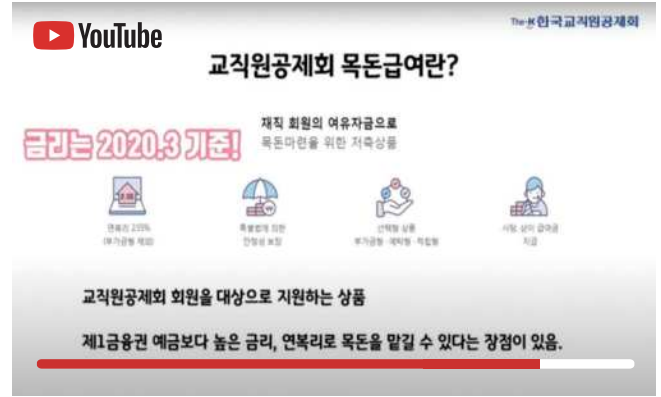


- 결혼은 우연한 기적 같은 것!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 결혼하게 된 The-K 크리에이터의 실제 경험담과 즐거운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알뜰하게 혜택 이용해 보세요.
- 2020년 새롭게 단장한 결혼기념품 복지부조 혜택에 대해 아기자기한 영상으로 알차고 재미있게 쏙쏙 알려드립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하는 일!(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

The-K 크리에이터 수수중학교 이청현



- 쉬지 않고 3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소중한 적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안전자산 위주로 돈을 모으는 것을 선호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The-K 크리에이터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에 직접 가입해 봐요! 실제 신청 방법부터 그 결과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직회원이 직접 전해주는 목돈급여의 생생한 장점과 이용 방법이 듣고 싶다면 지금 이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 제도

The-K 크리에이터 석암초등학교 이정환



-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The-K 복지누리대여, 혹시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 최초 대여·결혼·출산·주택 구입 및 임차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제 회원이신 The-K 크리에이터가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이용 방법과 대여 절차를 쉽고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대상에 신동필 한영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가 공동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2일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신동필 한영고등학교 교사 외 각 부문별 9명의 수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이진석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사업 이사(이사장 직무대행)와 수상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우수 교원에게 주어지는 근정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부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원이,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해온 진정한 교육자를 찾아 우리 시대의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공제회 ‘한국교육대상’과 교육부의 ‘ 으뜸교사상’을 통합해 제정한 최고 권위의 스승상이다.

수상자 명단		
대상	신동필 한영고등학교 교사	
부문별 수상자	유아	우영혜 거창유치원 원장
	특수	황정현 세종누리학교 교사
	초등	권미숙 이리남초등학교 교장
		김창섭 대구대남초등학교 교사
		서정애 양서초등학교 수석교사
	중등	서현석 청학공업고등학교 교사
		임혜숙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대학	김은집 연암대학교 부교수
		전창진 경북대학교 교수



“매일 5권, 전자 도서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회원 대상 전자도서 대여 이벤트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 도서 대여 서비스’ 이벤트를 시행한다. 회원 인증 후 전자 도서 대여 사이트에 있는 전자책 월 5권, 오디오북 월 2권 이내(1인 기준)로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단, 이용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544-1900(교보문고), 1577-3400(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행복서비스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나눠요 ‘더 따뜻한 말, 더 든든한 맘’ … 6월 21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동료 교직원들과 의료진을 향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더 따뜻한 말, 더 든든한 맘’ 이벤트를 개최한다.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당첨회원 8천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직접 준비한 건강관리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당첨 경품은 이벤트 응모 시 직접 입력한 주소로 배송된다. 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목돈·퇴직생활급여 급여율(이율) 조정

6월 1일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의 급여율을 연 2.55%에서 2.30%로 조정한다. 퇴직생활급여 중에서는 ‘부가금형’ 및 ‘적립형’만 급여율이 조정된다.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영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목돈급여는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교직원공제회의 퇴직 회원을 위한 제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도 퇴직 회원의 노후 자금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가 있다.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목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 1577-3400(한국교직원공제회)

“2020년 무장애 교실 프로젝트”

장애인 교원 교육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한국장애인재단 메일 주소(master@herbnum.org)를 통해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자 본인에 한해 개별 접수를 받으며, 6월 24일 발표 예정이다.

교육보조기기는 타 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교육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2020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장애인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품목은 점자정보단말기·독서확대기·특수마우스 등 수업 시 필요한 교육보조기기이며, 중증장애의 경우 500만원, 경증장애의 경우 300만원 내에서 1인 1품목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6399-6237(한국장애인재단 모금홍보팀)

“내가 고르는 베스트셀러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

6월 북&JOY 도서 증정 행사 … 6월 21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에 이어 6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를 개최한다. 국내 대표 종합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을 선정하여 회원 선택의 폭을 넓혔다.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응모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당첨회원 1400명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1인 1권을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6월 24일이며, 당첨회원에게는 이벤트 응모 시 직접 입력한 자택 주소로 7월 중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PC 또는 모바일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The-K호텔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서머 패키지



The-K호텔서울에서는 여름을 맞아 도심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서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A는 일반실 1박, 우첼로 조식 뷔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키지B는 일반실 1박, 더파크 석식 뷔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머 패키지 이용 시 레스토랑 우첼로·더파크, 베이커리 카페 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사우나·헬스장 이용 시 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공제회 회원이라면 ▲패키지A는 15만원, 패키지B는 18만원이라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연인들을 위한 우첼로가든 바비큐 패키지도 준비되어 있다. 우첼로가든 바비큐는 그릴을 이용하여 직접 구워먹는 형식으로 여유 있는 테이블 간격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바비큐 패키지A는 일반실 1박과 함께 소고기 안심·갈비살·LA갈비·등심 중 1종(360g 기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바비큐 패키지B는 일반실 1박, 소고기 1종(360g 기준)과 함께 조식뷔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제회 회원이라면 ▲패키지A는 12만5천원, 패키지B는 17만원이라는 특가에 이용할 수 있다. 바비큐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지리산가족호텔 6월 맞이 특별 이벤트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6월을 맞아 당 호텔에 투숙하는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리산 보물을 찾아라!’ 특별 이벤트를 시행한다.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The-K지리산가족호텔 입구 및 내부시설 등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 호텔 프론트에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조식·사우나·커피숍 2인 이용권이나 경품 1개 등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마련한 다양한 이벤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1인당 한 객실, 경품 1개만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호텔경주 특별 힐링 패키지 및 이벤트

The-K호텔경주는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Special 힐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회 회원이라면 ▲주중(일~목) 10만2천원, ▲금요일 11만1천원, ▲토요일 12만1천원이라는 특가에 이용할 수 있다. 단, 1인 3실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사전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약 및 취소변경은 투숙일 기준 5일전까지 가능) 본 패키지 이용 시 온돌 객실을 원하는 경우 5천원 추가 비용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고, 사우나는 6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주말(금, 토) 전면부 객실 이용 시에는 패키지 이용금액에서 1만원 추가 적용이 된다.

한편, The-K호텔경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운동 함께해요’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사우나 이용 시 정상이 1만3천원 대비 6천원 할인된 금액인 7천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도 ▲제과·커피숍 20%, ▲한식당 10%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본 이벤트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경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54-745-8100(The-K호텔경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올인클루시브 허니문 패키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국내 신혼부부들을 위한 올인클루시브 허니문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였다. 해당 패키지에는 ▲오션뷰 객실, ▲레스토랑 아침 식사 2인 또는 브런치를 위한 점심 식사 2인 중 택1, ▲저녁 다이닝 뷔페 2인, ▲스포츠센터 이용권, ▲BMW 렌터카 서비스, ▲와인 딜리버리, ▲얼리체크인과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 ▲몰트브라운 어매니티 트래블키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호텔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허니문을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배려했다.

또한, 파티 전문업체 리틀램데이블의 데코레이션 서비스를 추가로 예약할 수 있는데, ‘Will you be my Red?’라는 테마로 호텔 컬러인 레드를 로맨틱하게 재해석한 객실에서 뜻 깊은 허니문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다. 패키지 이용 시에는 체크인 시간 및 렌터카 예약 확인을 위해 유선 예약만 가능하다. 허니문 패키지는 스탠다드 오션뷰 객실 또는 드림 스위트 객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데코레이션 요금은 별도이고, 데코레이션이 추가 될 경우 예약실을 통해 체크인 시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064-729-8100(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The-K Guide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49년,
더 큰 미래로의 도약
[2019년 결산]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The-K 매거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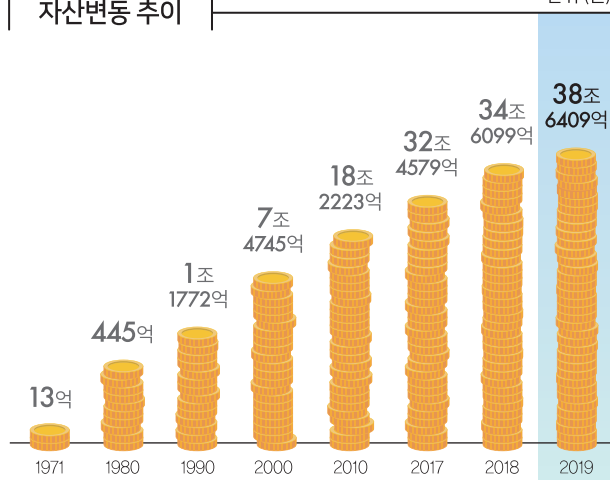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2019년 결산'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국내 유일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전국 18개 시도지부와 7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 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CC, The-K서드에이지, The-K에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제도를 포함하여 보험·대여 등 각종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콘도·문화행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립 당시 회원 7만 명, 자산 13억 원에 불과했으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현재 회원 83만 여명, 자산 38조원, 7개 출자회사를 보유한 국민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 38조원 돌파

자산변동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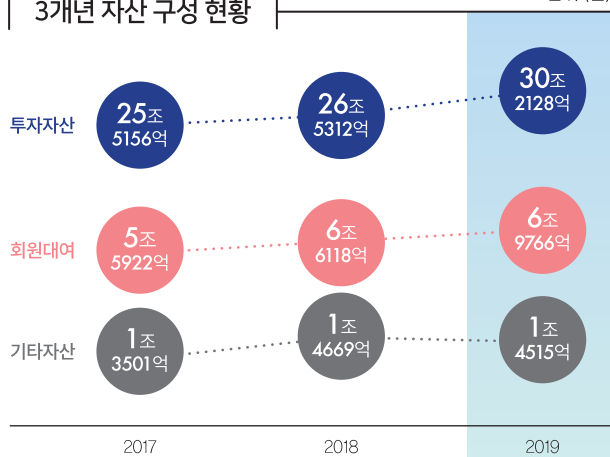


2019년말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총 자산 규모는
38조 6,409억원(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 9.2%)

- 자산운용의 목적은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수익성·안정성·분산투자·유동성을 원칙으로 운용
- 2019년 9월 장기저축급여 이자율 3.74%로 인상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래 최대 수준인 4,565억 원의 당기순이익 실현
- 준비금 적립률(모든 회원이 퇴직, 탈퇴 등의 사유로 급여금 청구 시 지급 여력 비율) 102.1% 달성 등 안정성 유지
- 선제적, 선구적으로 투자처를 적극 발굴, 2019년 기금운용 목표 초과 달성
- 2019년 기금운용수익률 7.1% 달성(최근 5개년 연평균 수익률 5.9%)
- 선제적·선구적 투자처 발굴과 더불어 투자 리스크 분산을 위해 주식·채권·기업금융·대체투자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결과 2019년 안정적으로 수익률 목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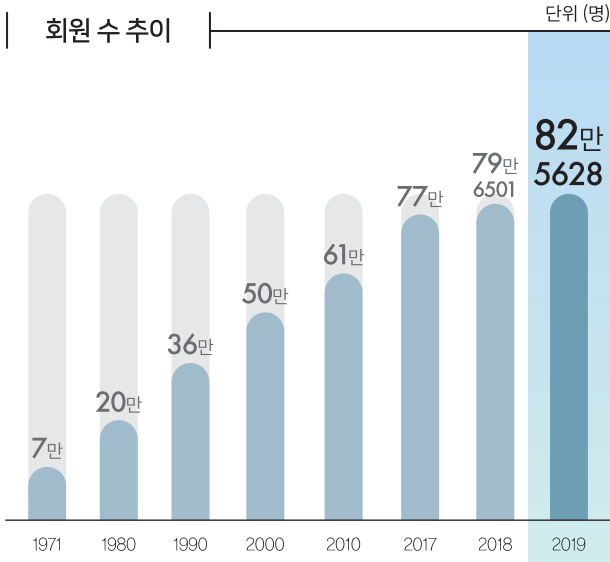
3개년 자산 구성 현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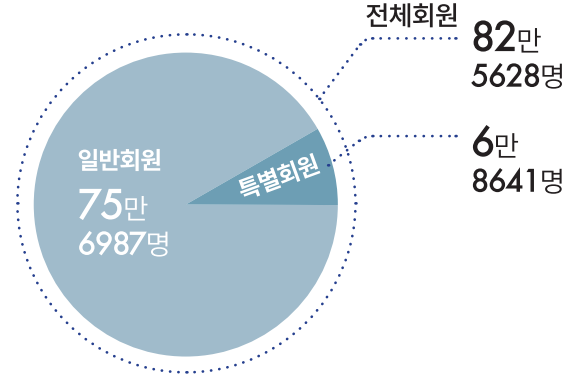


※투자 자산에 단기 자금 포함

회원 82만명 돌파



• 2019년도 회원 구성



- 일반회원 : 일반회원 자격을 갖춘 자 중, 장기저축급여 또는 종합 복지급여에 가입한 회원
- 특별회원 : 특별회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거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회원

복지서비스 이용회원 전년 대비 최고 16% 증가

- 회원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복지서비스 규모 확대, 회원 참여활동 강화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 추진
- 회원들이 여유 있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고품격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2019년 5월 공제회 출자 호텔 및 제주숙박시설에서 저렴하게 장기 숙박을 할 수 있는 'The-K 휴스테이' 출시
- 2019년 7월 도입한 현직회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The-K 마음쉼은 교권 침해, 대인관계, 가정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로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
- 2019년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복지서비스 초청 16만3천여 명(동반인 포함 28만 9천여 명)
- 2019년 회원 가입축하·결혼기념품, 출산축하금, 고구좌 회원 축하금 등 복지 부조 지급 9만 2108건
- 2019년 숙박·의료·장례·레저 등 생활복지서비스 이용 43만 4906건(전년 대비 16.0% 증가)

2019년 주요 연혁

- 3월** •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48주년 기념식
- 4월** •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전시회 개최
- 5월** •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실속암공제(1905) 출시'
 - The-K호텔 '휴스테이(롱스테이)' 객실 할인 도입
 - 2018년도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 7월** • 조직개편 단행, 준법지원실·회원사업전략실 신설
 -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 치매특화보험 출시
 - 제6회 한국 기금·자산운용 대상 공제회부문 최우수상 수상
 - 'The-K 마음쉼' 심리상담 프로그램 신설
- 9월** • 장기저축급여 제도 개선 시행
 -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계산방식 연배율제 → 이자율제 변경
 - 장기저축급여 구좌수 상한 1,000 → 1,500 확대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3.60% → 3.74% 변경
- 11월** • 2017~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12월** • 제29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한국사보협회 회장특별상 수상
 - 제7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 포상 기관 부문 한국표준협회 회장상 수상
 - The-K행복기부금 전달식 개최

소통하고, 함께하다 ‘독자에게 듣는 The-K 매거진’

지난 2019년 9월, The-K 매거진 개편 이후 많은 독자들이 매월 이메일과 웹진, 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관심어린 의견 한 줄 한 줄이 The-K 매거진을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The-K 매거진은 독자와 함께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그간 보내주신 의견 중 지난 4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의견들 중에 더 많은 독자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의미있는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사랑받는 The-K 매거진을 꿈꾸며 힘껏 정진하겠습니다.

※아래 소개된 15분의 회원님을 포함하여 선정되신 30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서인혜 회원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4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기’였습니다. 올해 1월, 우연히 치앙마이의 사진들을 보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호에 치앙마이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모두가 힘든 요즘 해외를 나가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건강하고 안정된 시기가 오면, 꼭 겨울방학에 치앙마이 한 달 살기에 도전하고 싶네요. 특히 치앙마이 숙소 구하는 정보가 유익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예약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현지에 가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는 유익한 팁을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안금희 회원 장안중학교

지난번에 매거진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정기 우편 발송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오늘 반갑게 우편함에 있었어요. 지금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The-K 매거진 편집부 가족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감성도 있지만, 특히 향긋한 종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벤트 신청을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다 좋았지만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면역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며 면역력을 올리는 건강 레시피가 참 좋네요. 무엇보다 책자를 달마다 하나씩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예슬 회원 의왕초등학교

이번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은 The-K 인터뷰 ‘최재봉 교수님’ 편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교사로서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시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이 너무나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인공지능(AI) 교실에서의 교사 역할’과 관련한 기사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에세이 코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에세이 코너를 좀 더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하루하루 추억을 쌓아가면서 에피소드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걸 재미있게 혹은 감동적으로 풀어 쓸 분들이 재야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보라 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제회에 가입만 했지 잘 몰랐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이 좋았습니다. 병원에 근무해서 그런지 코로나19가 만연한 지금, 면역력에 대해 다룬 기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도 어려운 시점에 외국 여행에 관한 글은 잘 와 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슈가 끝난다면 국내 여행 기사 위주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The-K 매거진에는 학교, 병원, 공무원, 연구기관 등 다른 모습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실 회원님들의 모습을 다루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는 상황에서의 선생님들, 교육청 공무원, 대학병원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심명석 회원 前 문일고등학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좋은 기사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포노 사피엔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휴대폰의 여러 기능을 젊은이들처럼 사용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호의 기사 중 '정해진 미래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미리 준비를 마치고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에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현실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나이 들어가는 은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변양순 회원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화상통화 등을 통해 학생들과 대화하는 아쉬운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The-K 매거진이 시원한 청량감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더욱 내실 있게 보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폭넓은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교직원과 회로애락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은 물론, 교직 생활의 단비가 되어 주는 매거진을 매달 기다리는 설렘 또한 큰 행복입니다.

...

이을애 회원 백동초등학교

4월 매거진을 읽으면서 '참 많은 정성을 들여 주제를 정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면역력에 대한 내용과 건강한 밥상이 연속으로 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기사도 있어 참 좋았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기는 정보 부족이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언제 한번 꼭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지난겨울에 딸아이 혼자 치앙마이 자유여행을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 마음에 불안하다고 못 가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언제 시간 되면 딸과 함께 치앙마이에 가보고 싶습니다.

...

이명희 회원 前 석포여자중학교

사북고등학교 김문섭 교사의 학생을 향한 열정이 읽는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과학교사로서 학생들과 여러 번의 탐구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학생들과의 작업은 매번 새로운 의욕을 샘솟게 하지만 또 그만큼 힘든 여정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학생들의 진로와 도전에 열정을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저로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는 김문섭 교사와 같은 분의 이야기를 매거진에 실어서 전국의 교사들에게 교직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주어서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정한나 회원 선학초등학교

이번 호에서 특별히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성공한다'라는 글이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행복이 의욕을 낳고, 의욕이 있어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뿐 아니라 나 또한 행복하기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이는 행복했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도 소소한 일상에서 자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의 힘든 일들도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만들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

고준호 회원 서울대학교

구성에 있어서, 독자의 의견을 반영해 섹션 테마를 나누어 소개를 표기한 것이 정말 좋았어요.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대한 고찰 부분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교직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교직원공제회 매거진에는 이렇게 풍요롭고 다양한 주제의 좋은 글들이 실린다고 자랑했을 정도니까요. 또한, 교사는 '인공지능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분야를 찾아야만 한다'는 부분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대학교의 행정직원으로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남연 회원 화순제일중학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위해 교육이 진화해야 하고, 교사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인공지능 교실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을 알기 쉽게 담은 기사가 와 닿았습니다. 수업은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소통·배려·협업능력 등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에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미래의 교실과 교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홍은선 회원 서울매천초등학교

저는 육아 휴직 교사입니다. 학교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제가 교사임을 망각하며 지낼 때가 많았는데 The-K 매거진을 접하게 된 뒤로는 제가 교사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와 저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소통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코너는 김문섭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동시에 부족한 제 모습이 오버랩되어 읽는 내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인터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문섭 선생님의 진로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로교육의 접근을 조금씩 바꾸어보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당장 제가 하고 있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진로교육부터 조금씩 개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해 당장은 실천할 수 없지만 마음이라도 많이 채워 놓아야겠습니다.



김순남 회원 불내중학교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시기에 종이 잡지를 오랜만에 받아보았습니다. 한 장씩 넘기고 메모하며 찬찬히 읽는 그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선생님들의 얘기가 좋았습니다. 저도 작은 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가는 김문섭 선생님의 메시지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피리 부는 이정인 선생님도 멋졌습니다. 쌤투버는 아직 저에게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온라인 개학이 화두인 요즘 뭐라도 시도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학교의 얘기를 더 많이 들려주길 기대합니다.



이재권 회원 개화초등학교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 보는 것도,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은 상황에서 면역력을 올리는 건강식 '봄 내음 진한 영양 한 그릇' 삼겹살 미나리 덮밥 편을 보고 가까운 마트에 들러 재료들을 사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었네요.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 시국에 교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학교 걱정 마시고 본인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교감 선생님 아닙니까? 미나리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겨서 얼른 학생들을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순 회원 상록고등학교

교직생활 35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엄청난 속도로 바꾸어 놓아 아날로그 세대인 저는 많이 허둥대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재봉 교수님의 '포노 사피엔스'가 더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은 또 어떤 수식어를 달게 될까요? The-K 매거진을 모르고 있는 주변 교사들에게 기사를 권하고 독자 퀴즈도 같이 풀어보며 본의 아니게 매거진 홍보를 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영상수업 제작 기법은 젊은 교사들에게 밀리지만 매거진 덕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니, 저 나잇값 한 거 맞지요?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따뜻한 칭찬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끔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총 158명의 독자님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봉 교수의 인터뷰와 진정성과 전문성으로 진로교육에 앞장서는 김문섭 선생님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교실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글이 유익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더불어 정기 우편 발송 이벤트로 매거진을 집에서 받아보게 되어 편리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의견을 즉각적으로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추후 기획·편집 시 참고하여 최대한 독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과 좋았던 코너나 내용, 새로운 의견(The-K 매거진에 바라는 점) 등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6월호



독자퀴즈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 독자퀴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thekmagazine@ktcu.or.kr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Quiz 1.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뜨거운 삶을 실천하며 진정한 애국심으로 누구보다 청렴한 기업인의 삶을 살았던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 (20~23p 참고)

Quiz 2.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있으며 유적
탐방, 시티투어, 휴양으로 사시사철 언제나 한 달 살기가 매력적인 국가의 이름은?

○○○○ (58~61p 참고)

Quiz 3.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소식과 제도, 각종 혜택, 교육·업무 현장과 관련된 알찬 소식들을 글, 사진,
영상으로 보기 쉽게 제작해 알려주며 교육가족과 가까이 소통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명칭은?

The-K ○○○○○ (68~71p 참고)

5월호 독자퀴즈 정답

Quiz 1. 거꾸로 실험 Quiz 2. 코로나 블루 Quiz 3. 닥터프렌즈



※ 4월호 독자퀴즈 및 독자의견 선정자는
웹진(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6월 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월호 선정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교육이나 성인학습의 특징적 방법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스스로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데에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수업의 이해도를 스스로 검토해야 하고, 궁금한 점은 대면 수업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교사와 소통해야 하는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하며, 이에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글. 이민영(현대경제연구원 전문교수)





자기주도학습의 ‘방법’부터 알려주자

필자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런데 정작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목적 없이 책만 들여다보거나, 문제집을 풀긴 했는데 틀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기억이 있다. 누군가가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고 일러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운 좋게도 공부를 잘하는 짝꿍 덕분에 노트 필기 하는 법, 요점 찾는 법,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이렇듯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거나, 전혀 몰라 고민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지 모른다.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이지만 아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채 스스로 하라고 하는 건 부모나 교사의 책무를 다하는 게 아닐지 모른다.

‘노트 정리법’이 중요하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 밑줄을 쳐야 하는 곳이나 중요한 부분 등을 일러주어 나름의 정리가 되지만,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집중력도 문제가 된다. 하루 6~7교시 수업을 온라인으로 내내 듣게 되면, 나중에는 드라마를 감상하듯 강의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성인들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는데 능동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의무감에 2배속으로 듣는다가거나, 딴생각을 하다 수업의 흐름을 놓쳤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선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듣는 요령을 안내하도록 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리하여 본인의 내용으로 숙지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쓰기’다. 이는 아웃풋(Output, 뇌 안에 들어온 정보를 뇌 안에서 처리하여 바깥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말하기·쓰기·행동하기가 해당된다)을 의미한다. 강의에서 들은 내용, 즉 인풋(input, 뇌 안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읽기·듣기가 해당된다)은 ‘해마’라는 뇌의 단기 기억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몇 번의 인풋이 반복되면 장기 기억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아웃풋 행위에 의해 몇 번의 반복 과정이 가능해진다.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쉬운 아웃풋은 노트에 정리하는 것이므로, 노트 정리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우리 학생들, 노트에 정리하면서 강의 들으세요”라는 선생님

말씀에, 누군가는 모든 내용을 베끼기에 바쁘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캡처를 하고, 누군가는 교과서 빈 공간에 끄적대고 있을 것이다.

유튜브 채널에는 ‘의대생 필기법’, ‘고시생 공부법’ 등의 영상들이 많이 있다. 이런 영상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색깔 펜과 형광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노트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지 등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현직 교사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의 신’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공부 방법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단,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조건이 있다. 내가 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를 줘야 한다. 샘플을 보여주며, 나름의 방법을 존중해 주자.

‘읽기·쓰기·말하기·듣기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기본 능력은 소통 능력이다. 바로 읽기·쓰기·말하기·듣기 능력을 말한다.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학습이 이뤄졌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할 때와는 달리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업무 내용을 메일로 주고받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전화를 한다. 전화 통화로도 어렵다면 만나서 안건을 해결하곤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 혹은 과제 관련 언급을 할 때 상대의 입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읽기·쓰기·말하기·듣기 능력이 모든 교과 학습에 기본이 되는 능력임을 인지하고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질문이 오고 가도록 소통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부터 실천하자.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충분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㉞



나의 이상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이쁜옷 입고
출근해야지 ~ㅎ



교직원이 된지 어언 일 년째.

하지만 현실은...



잔병만 늘어나고... 종합병원이라도 가야하나...?

교직원이라면 종합보험 대신

종합공제 (2002)

드르게 인지상정!

교직원 맞춤형 특약에
보험료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쫓~ 누리다가 만기 생존 시
환급까지 받는 보험

종합공제

(2002)



※ 환급형 선택시

The-K 매거진
6월 즉석당첨
이벤트

오늘도 수고한 당신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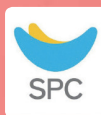
JUNE비 했어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수고한 당신을 위해
The-K 매거진이 준비한 선물 받고
항상 힘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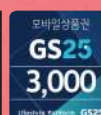
| 이벤트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이마트 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SPC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300개)



GS편의점 모바일상품권
3,000원권(6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6월 즉석당첨 이벤트' 클릭

➡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 확인 ➡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 사항 기입

유의 사항

- 기프티콘은 7월 중순 발송 예정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 당첨은 경품당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2020. 05. 06.



질병관리본부
KCDC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